Industry p/12



요즘 대학생 5학년은 기본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제3082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포스트맨 깜짝 신곡 발표



새누리당 개혁안 지켜보는 공무원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모습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지급 65세로 늦춘다

여, 월 수령 438만원 이상은 10년 동결… 공무원 노조 강력 반발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 개혁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 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 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 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 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 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또 소득 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해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 고액 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野 "하박상박의 개악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후상박 구조가 아닌 하박상박 구조의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TF 첫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정작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특수직 연금 3가지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정을 재추계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 공무원연금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투쟁 벌이겠다"

공무원노조들은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연금 개혁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판교 환풍구 부실 시공

국과수 감정…"용접불량에 볼트 미고정"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광장 환풍구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함께 시공사 관계자 등 출국금지된 이들의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사고는 직사각형 형태인 환풍구를 세로로 지탱하고 있는 2개의 부재 중 좌측 부재가 꺾이고, 이와 맞닿아 있던 가로 부재 용접부가 끊어지면서 붕괴돼 발생했다"며 "전체적인 감정결과 용접불량,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자형 벽면 지지대와 부재를 조여주는 볼트 40개 중 11개에서 불량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곳은 아예 너트도 없었다.

경찰은 시공 관계자들이 L자 지지대가 콘크리트 틈과 수평이 맞지 않아 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광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사고는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윤다혜기자 ydh@



국감 참석한 김부선씨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리'와 관련해 참고인자격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재난위험 보험 내년 도입

병원·소공연장·학원 의무가입 대상

내년부터 교량, 터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난위험 시설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내달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되는 26개 의무보험도 보상한도와 벌칙조항을 법령에 넣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이밖에 임시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도 재난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 변경되며 부처별로 전산망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아이들 향한 도 넘은 악플



기자 수첩

김 지 민 <연예스포츠부 기자>

악성 댓글, 일명 '악플'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대상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에게도 향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MBC '아빠어디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향한 악플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육아 예능'의 첫 포문을 연 '아빠 어디가' 시즌1에 출연했던 아이들은 외모·태도에 대한 지적부터 입에 담기 힘든 악성 루머까지 악플 세례를 겪었다. 김민율 군은 방송에서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준수 군은 존댓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훈장님'들에게 회초리를 맞았다.

심지어 TV에 잠깐 노출돼도 악플러의 키보드 위에 오른다. 안정환의 아내 이혜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딸아이가 댓글을 읽는 걸 보고 놀라 컴퓨터를 부쉬버릴 듯 끈 뒤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TV에 출연하는 아이들이라면 흔히 치르는 유명세라고 말한다. 하지만 굳이 TV에 출연하지 않아도 유명인사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악플의 대상이 된다.

전 프로게이머 임요환과 결혼한 김가연은 자신의 딸을 둘러싼 악플러 90여 명을 고소했다. 김가연은 방송을 통해 "어린 내 딸을 두고 성적 모욕은 물론 패륜적인 내용까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해도 선처하는 선례가 많았기에 이번에도 그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가연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사실 악플러는 따로 있지 않다. 누구나 될 수 있다. 자신의 섣부른 타이핑이 누군가에게는 화살이 돼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악수하는 정의화 의장과 아베 총리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도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의원, 유흥수 주일 대사, 정 의장, 새누리당 김태환, 심윤조, 신의진 의원. /연합뉴스

"남한 전단 살포 강행 방임"

北 국방위 전통문 보내… 고위급 접촉 불투명

북한 국방위원회가 26일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방식을 비난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은 26일 새벽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우리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 살포 계획은 무산됐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이는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7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 대북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면서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또 "이미 남북이 개최에 합의하고 우리 측이 일시와 장소를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김기춘,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에 배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 회동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 함께 배석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의 3자 회동시 배석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자원 외교·방산 비리 조사단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된 자원 외교 문제와 방산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각각 구성했다.

'국부유출 자원 외교 진상조사단'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이, '방산 비리 조사단'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

청와대 '지하벙커' 2배 확대 이전 추진 중

●청와대가 이른바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상황실'을 현재의 2배 규모로 확장·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최근 작성한 '201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청와대는 위기관리상황실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24억5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작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냐"

한민구 국방장관 "추가 능력 확보에 시간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6·25 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가지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의 수정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용산기지와 210화력여단 모두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YRP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휴대폰 시장 한·중·미·일 4파전

삼성전자·LG전자·애플 '프리미엄'
소니·화웨이 중저가형 시장 공략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신 기능을 탑재한 외국산 스마트폰과 진검 승부를 펼친다. 올 하반기 예고된 한·미·일·중의 4파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미' 프리미엄 스마트폰

삼성전자와 애플은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통화 등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을 모두 최고 사양으로 맞춘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저가형 뿐 아니라 프리미엄급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갤럭시노트4에 이어 갤럭시 노트 엣지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엣지를 28일부터 이통3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갤럭시 노트 엣지는 커브드 3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전면뿐만 아니라 우측 옆면까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이통사를 통해 예약판매에 들어갔으며 3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애플은 혁신보다 대화면 채택으로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는데 집중했다. 애플 아이폰6는 4.7인치, 아이폰6 플러스는 5.5인치 화면을 채용했으며, 화면이 커지면서 가로모드를 지원하게 됐다. 물론 두 제품모두 애플의 최신 AP(A8)가 탑재됐다. 전작인 아이폰5S에 탑재된 A7 대비 처리 속도와 그래픽 성능이 각각 25%, 50% 높아지는 등 성능이 개선됐다.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LG전자는 광대역 LTE-A가 가능한 G3의 후속작 캣6를 출시하며 제품라인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초에는 6인치에 가까운 G프로3를 내놓을 전망이다.

◆'중·일' 중저가시장 겨냥

소니와 화웨이는 중저가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소니는 지난 9월 29일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3'와 보급형 제품인 '엑스페리아 Z3 콤팩트'를 출시했다.

엑스페리아 Z3는 최신 부품을 탑재했지만 가격은 경쟁 제품 대비 15만원 가량 저렴한 79만9000원에 책정됐다. 이통사를 거치지 않는 '자급제폰(단말기 구입후 통신사 선택 개통 방식)' 형태로 출시됐다. 엑스페리아 Z3 콤팩트는 4.6인치 화면으로 가격은 59만9000원이다. 착한가격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 화웨이의 'X3'를 판매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미디어로그는 유통망을 확대했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430여개의 하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미디어로그는 27일 "프리미엄급에 해당하는 사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을 현실화한 화웨이 X3가 지난 25일부터 전국 하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며 "요금제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단말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성능은 90만원대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견줘 크게 뒤지지 않지만 국내 출고 가격은 52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출고가가 52만8000원임을 감안하면 요금제에 따라 20만원 초반대에서도 화웨이 X3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980억원대 짝퉁 명품시계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총 980억원대 가짜 명품시계 6700여 개를 밀반입 단속과정에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가짜 명품 시계. /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1등 항해사 등 3명 무기징역
실종자 가족 "수중수색 지속"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2등 항해사 김모(46)씨·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선체 인양 여부를 놓고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윤다혜기자

대입 자소서·추천서 베끼기 '심각'

작년 9000여건 의혹… 서울·연세·고려대도 500건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중 9000여건이 표절이거나 표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4학년도 입학생 대상 대학별 유사도 검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표절로 분류되는 '위험수준'의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각각 1599건, 66건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표절 가능성이 있는 '의심수준'의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는 각각 6442건, 1209건으로, 위험 및 의심 수준을 합하면 9316건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76건이 의심수준, 18건이 위험수준 판정을 받았고 연세대는 의심수준 161건, 위험수준 19건, 고려대는 의심수준 141건, 위험수준 25건이었다.

/윤다혜기자 ydh@

"올림픽 열리면 땅값 10배"… 68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 등은 평당 8800원에 구입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임야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노인, 주부 등 614명에게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강릉시에서 열리면 근처 땅값이 10배 이상 올라간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임야는 진입로도 없는 급경사 돌산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워킹대디"

사람이야기

■올림푸스코리아 손천강 차장

아이와 놀아주다 특허도 출원… 일·육아 모두 가능하게

올림푸스코리아 사이언스 솔루션스 사업부 손천강(40·사진) 차장은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꽉 잡고 있는 '워킹대디'다. 일반 가정에서는 대체로 여성이 육아부담을 떠맡는 게 일반적이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달래는 일은 여성의 몫이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 차장의 육아법은 달랐다. 직장 내에서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가정에서는 남다른 부성애로 아내와 아이에게 더없이 다정하고 좋은 아빠였다. 최근에는 자신만의 아이육아법을 담은 '괴짜 발명가 아빠의 괴짜 육아놀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괴짜 육아놀이' 출간

손 차장의 첫 인상은 괴짜라는 느낌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직장인의 모습이 강했다. 실제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일반 직장인처럼 동료들과 술자리와 운동을 즐기고, 꼼꼼한 성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와 놀면서 느낀 부분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손 차장은 아내와 결혼 10주년에 기념적인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와 함께하며 느꼈던 내용을 담은 육아일기를 책으로 만들게 됐다. 이 책에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딸이 제일 좋아하던 놀이, 딸아이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즐기고 느낀 내용을 담아놓았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건 사실이다. 모바일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싶지만 조금만 참고 아이와 함께하면 된다. 오히려 아이와 놀아주면서 아내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며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일과 가정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다양한 특허(실용신안)를 내놨다. 그는 아이와 이불로 김밥 말이 놀이를 하면서 '유아이불용 김밥놀이세트'를 실용신안 출원했다. 차로 이동하며 아이가 했던 이야기를 적용해 차량조명관련 실용신안 출원, 차량핸들관련 특허 1건 등 다양한 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현재에 만족하기 보다 앞으로 아이 성장에 맞춘 정보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출간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며 "아이가 성장(유치원·초·중·고등학교)하면서 아빠가 함께 놀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책을 꾸준히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문화 도움 커

손 차장이 '워킹대디'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도움이 컸다. 직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올림푸스코리아의 정책 덕분이다.

현재 올림푸스코리아는 임직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평소에도 임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차 사용 현황 체크를 하고 있다. 또 오후 5시 30분 정시 퇴근 문화를 정착시켜 개인 시간을 휴식과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문화생활과 다양한 동호회 지원 등 특화된 복지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손 차장은 "회사의 정시퇴근 제도가 많은 도움을 줬다"며 "기회가 되면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 육아법에 대한 팁을 알려주는 강연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KTDS '클라우드 엑스포' 참가

첨단 IT운영 선보여

KT그룹의 IT서비스 전문기업인 KTDS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14'에 참가해 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IT운영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KTDS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수준의 IT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IT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시했다.

KTDS 매니지드 서비스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의 IT시스템을 통합, 운영 관리함으로써 전체 비용은 낮추고,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된 다양한 운영 솔루션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오픈소스 기반의 관제 솔루션은 설계와 구축, 운영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 때문에 일반 기업도 IT 기업 수준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김기호 KTDS 전무는 "글로벌 수준의 IT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프라와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막대한 비용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니지드 서비스와 같이 'as a Serivce' 형태의 IT서비스가 창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KTDS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14'에 참가해 첨단 IT운영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KTDS 제공



나란히 자리한 IT업계 CEO 27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특별행사로 열린 '글로벌 ICT 프리미엄 포럼'에서 김상헌(왼쪽) 네이버 대표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유비쿼터스 세상의 중심'을 주제로 강연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고객이 기업을 좌우하는 시대"

셜리 위-추이 한국IBM 대표, 미래부 주최 ITU 행사서 연설

한국IBM의 셜리 위-추이(사진) 대표는 27일 "소비자가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며 "기업은 더욱 긴밀한 고객과의 협업을 해야 하며 최고경영진은 고객 경험 관리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위-추이 한국IBM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 기조연설자로 참가해 과거와 달리 기업에 미치는 고객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대표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은 위-추이 대표는 '기업의 미래, 고객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IBM의 글로벌최고경영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금보다 향후 3~5년 내에 고객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촉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주체별로 측정한 결과, 소비자는 55%로 최고위급 임원(78%)보다는 영향력이 적지만 회사의 이사회(53%)나 주요 외부 협력사(25%), 모기업(23%)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모바일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기존의 논리적인 좌뇌형 컴퓨팅에 감각 처리를 하는 우뇌형 컴퓨팅을 도입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인간과 협업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인지 컴퓨팅 시대도 소개했다.

셜리 위-추이 대표는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는 기술 변혁 시대인 지금, 더욱 적극적인 기술 도입과 활용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며 "고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新娘老妝新



▲準新郎離去，準新娘當街痛哭。(互聯網)

深圳怪事

結婚這回事，可不包保「白頭到老」啊！深圳一位準新郎正等待他的準新娘一起拍婚紗照。誰知新娘將自己扮成70歲老太，問男友70

日於深圳東門。這位準新禮服，等待他的「美人」照。誰知準新娘到場後，着婚紗，但她卻叫化妝師化妝成70歲老太太的模樣

metro France

ttes sur internet : les clients t pénalisés ?

12:46

gouvernement veut interdire aux clients d'acheter des cartouches rangers. Seule la vente est actuellement pénalisée.



s vendent les cartouches de cigarette entre 35 et 50 euros. Photo : POUZET

인터넷 담배 판매 제재 검토

프랑스 정부가 담배 인터넷 판매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선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 인터넷에선 기존 담배 가격의 50%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배 한보루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경우 35유로에서 50유로 (약 6만6000원)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담배 인터넷 판매에 제재를 강구하고 있다. 23일 프랑스 국회는 담배 인터넷 판매 제재 조치에 대해 정부가 토론회를 주관할 것이라 밝혔다.

metro Brazil

De SCS ao Alasca fazendo o bem



유기동물 위한 사랑의 횡단

브라질에서 유기 동물에게 먹이를 나눠주며 미주 대륙 횡단을 계획하는 부부가 있어 화제다. 엘레니 아우베장와 세르지우 메데이루스 부부는 2015년 2월부터 1년간 브라질부터 북미 최북단까지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여행의 목적은 유기 동물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것. 여행 동안 15개국 이상을 거칠 예정이다. 부부는 사료통에 '사랑과 음식을 담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을 3개 국어로 붙일 계획이다.

웨딩 촬영에 노인 분장하고 온 신부

"남친 바람기 때문에 늙어서도 사랑해줄지 시험"… 신랑 떠나고 혼자 남자 울음



중국에서 예비신부가 웨딩 촬영에 노인 분장을 하고 나타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최근 선전시 둥먼에서 예비신랑이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 예비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비신랑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부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20대 초반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70대 할머니 분장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비신부는 그러면서 70세가 돼도 자신을 계속 사랑할 것이냐고 물었다.

예비신랑은 다시 화장을 하고 오라고 했지만 예비신부는 노인 모습으로 촬영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두 사람은 구경꾼들이 둘러싼 가운데 한참을 싸웠다. 결국 예비신랑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지켜보던 사람들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혼자 남겨진 예비신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남자친구가 바람기가 있어서 자신이 늙어서도 사랑해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노인 분장을 한 이유를 밝혔다.

자리에 있던 시민은 "진짜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이해해줄 것 같다", "누구나 예쁜 모습으로 웨딩 사진을 찍고 싶지 않겠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결혼 전문가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길게 보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의 늙은 모습을 보고 결혼하기가 싫어진다면 이 사람은 좋은 결혼 상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미니스커트·히잡 교내서 착용 금지"

러시아 피로고프 국립의과대학 학생들이 단단히 성이 났다. 최근 안드레이 캄킨 총장이 교내에서 종교와 특정 민족을 나타내거나 화려한 색상의 의상, 미니스커트,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상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학칙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캄킨 총장은 해당 금지령을 어길 경우 학생들은 퇴학을, 교수들은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다수 학생들은 "말도 안되는 학칙"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은 "매년 겨울에 알록달록한 털모자를 자주 썼다"며 "올겨울에는 금지령 때문에 흰색 모자를 사야 한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어 "학교 내에는 금지령에 반대한 학생이 벌써 퇴학을 당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히잡을 쓴 한 무리의 여학생들은 "이번 금지령은 우리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화려한 색상의 의복과 청바지 금지는 이를 감추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러시아 전통의상을 입어도 민족성을 나타낸다며 금지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조치는 민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총장의 금지령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 2학년 학생은 "캄킨 총장의 금지령에 찬성한다"며 "왜 학교 내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채 기도를 올리는 학생들을 두고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번 금지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된 탓에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복장 규정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반 골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1931.97 (+6.28)	코스닥	559.92 (−0.74)
금리(국고채 3년)	2.22 (+0.01)	환율(원·달러)	1052.50 (−5.50)

뉴스&뉴스



환전상 증가 올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을 위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을 상대하는 환전상(환전영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의 환전상 수는 1351개로 지난해 말보다 76개 늘었다. /연합뉴스

여성 54% "직장이 우선"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일 20~30대 직장인 여성회원 15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여성이 결혼을 위해 진로를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직장 경력을 결혼보다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서'(47.9%)였다. 2위는 '본인의 능력을 살리고 싶어서'(41.6%)'가 차지했다. '결혼을 언제쯤 하고 싶은가'란 문항에는 응답자의 36.10%가 '결혼을 늦게 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아예 안 할 것 같다'는 답변도 10% 지지를 얻었다. '이르게 할 것 같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장윤희기자

"단통법 과대 포장 정책 실패 불렀다"

미방위, 사이버 사찰·주파수 등 논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0여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미방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었다.

오랜기간 미방위에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기대와 달리 가계통신비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미방위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가계통신비 인상 현상에 대해 질타했다.

법안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이통3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 민간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닌데 과대포장한 것이 정책 실패를 불렀다"면서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실시,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서만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제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보조금 지급 행태가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시행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특히 27일 열린 미래부 확정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출석토록 했으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ITU 전권회의의 부대행사 패널로 참석,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도 일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 사업자로 충분한 배려를 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일주일 전에 요청했다"면서 "패널로 참석한다는 것은 몇 달전 결정된 일인데 아무런 말이 없다가 ITU 행사로 인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이번 국감에 출석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한 부분도 논쟁이 오갔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가 국민을 위한 논란이 아닌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 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미래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 고수는 절차상 하자와 법률 위반임을 지적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광개토플랜에서 할당키로 의결한 40MHz 폭의 통신용 주파수는 현재 미래부가 확보한 2.6GHz 대역에서 할당하면 된다"며 "재난망에 할당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지상파 UHD TV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기조연설하는 김영기 삼성전자 사장 27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특별행사로 열린 '글로벌 ICT 프리미엄 포럼'에서 김영기 삼성전자 사장이 '5G 통신기술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자신의 웨어러블 기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1위 국내기업 중 절반이 벤처

평균 15년 만에 톱 달성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국내 벤처기업이 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국내 기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은 모두 130개다. 이 가운데 48.5%인 63개가 벤처기업이 차지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적이 있는 기업 187개 가운데에서도 벤처기업의 비율은 49.7%(93개)로 나타났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나누면 기계·제조·자동차가 35.5%로 가장 많았다.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18.3%), 음식료·섬유·(비)금속(17.2%)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 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기간은 평균 14.6년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 6.3년으로 가장 짧았고 기계·제조·자동차가 16.2년으로 가장 길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비결은 과감한 R&D 투자와 수출 다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1위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4.5%, 수출 비중은 36.1%였다.

평균 매출액 증가율(6.3%),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6.8%), 순이익률(4.7%)은 중소기업(각 4.6%·4.2%·0.7%)이나 대기업(각 0.6%·4.6%·2.4%)보다 훨씬 높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군임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앞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신흥·틈새시장을 겨냥한 R&D와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양사 주가 7% 이상 뛰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27일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삼성중공업은 27일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이사와 감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비율은 1:2.36이다. 삼성중공업은 신주를 발행하고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주당 삼성중공업 주식 2.36주를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에게 교부한다. 합병가액은 삼성중공업이 2만6972원, 삼성엔지니어링이 6만3628원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이번 합병으로 해양플랜트 부문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보유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설계 가능 인원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설계 분야에 약한 삼성중공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설계 인력을 활용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의 플랜트 기자재 조달 노하우를 해양플랜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합병을 통한 양사의 연간 구매 물량은 10조 4000억원 규모로, 통합구매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2020년 매출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같은 기대감 때문에 이날 삼성중공업 주가는 전주보다 무려 1650원(+7.24%)이 오른 2만445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전주보다 4200원(+7.73%)이 상승한 5만8500원에 마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과 전태흥 삼성중공업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각각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양사는 12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mjki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HNT 하나투어
H Wedding
그여자, 그남자가 선택한 결혼준비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Marry me?
찾아 오는길
도산공원
국민은행
CGV청담씨네티
학동사거리
호림아트센터
우리은행
아웃백
SB빌딩
강남구청
도산거리
제일은행
신사동
학동역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일시 : 2014년 11월 15일(토요일)~11월 16일(일요일)
장소 : 호림아트센터(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거리)
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상담문의 02) 2127-1234
하나투어 고객님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여행'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하나되는 지구세상

<독립보험대리점>

보험 설계사 GA로 이탈 가속화

불완전 판매율 생·손보사 보다 3배 높아… 소비자 피해 우려

issue&view
인력 구조조정 영향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 우려 등 잇단 악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FC)가 독립보험대리점(GA)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의 경우 FC의 잦은 이동으로 기존 대면채널보다 불완전 판매율이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조조정 여파로 보험 업체의 전속 FC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보사의 7월 말 현재 FC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13만5455명이다. 손보사의 올해 6월 기준 전속 FC도 16만483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올들어서도 삼성과 한화생명은 지난 5월 각각 1000여명 300여명을 감축했고 교보생명은 480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신한생명도 지난달 전체 직원의 3%(48명)를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올 연말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에서 추가 인력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GA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대리점이다. 한곳에서 여러 회사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14년 전 도입됐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전속 보험사보다 높은 평균 60~7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GA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전국적으로 20만명이 넘어 전체 설계사의 절반에 가깝다.

2011년 3월말 4285개이던 GA는 지난해 9월 말 4624개로 7.9% 늘었다. 설계사 500명 이상인 GA도 지난해 12월 36곳으로 전년 대비 6곳 증가했다.

GA의 성장세가 지속되자 일부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업체를 설립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1월 자본금 70억원의 자회사형 GA인 '동부금융서비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10월 자사형 GA '라이나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고 미래에셋은 지난 4월부터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메리츠화재(메리츠금융서비스), AIG손해보험(AIG어드바이저) 등도 자사형 GA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GA의 경우 불완전 판매율이 타 채널보다 높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완전 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기준 GA의 불완전판매율은 9.1%로 생보사(3.8%)와 손보사(2.1%)보다 3~4배 이상 높다. 이는 방카슈랑스나 개인 대리점, 홈쇼핑 등 다른 채널과 비교해도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이 월등히 높다.

실제로 GA 채널을 확대한 NH농협생명의 경우 지난 2012년 62건에 불과하던 불완전판매가 올해 8월 기준 2324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농협생명의 GA 판매 수수료는 지난 2012년 49억원에서 올 8월 1022억원으로 증가했다.

GA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도 1차적인 책임이 보험사에 있어 GA 설계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GA로 빠져나가는 설계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감독당국이 이를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속도 낸다

소수지분 26.97% 매각 공고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에 이어 소수지분 매각에 나선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 26.97%의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가운데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개별 응찰자 기준으로 최소 0.4%(250만주)이상에서 최대 10%(6762만7837주)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되려면 제시한 가격이 매도자의 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예보로부터 0.5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이틀 전인 11월 26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입찰 마감 이틀 전을 기준으로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의 평균 주가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균을 내 여기에 20%를 할증한 가격이다.

공자위는 다음달 28일 입찰을 마감하고, 12월 초 낙찰자를 정할 계획이다. 연내 주식 교부가 끝나는 만큼, 우리은행이 내년 주주총회에서 배당 실시를 결정할 경우 배당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도 20% 가량 할증 발행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교보생명에 경영권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은행 노조 측은 "교보생명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은행을 경영할 능력도, 자금도 없는 제2금융권의 회사가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입시 문제를 낸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해외자본이 참여할 경우 론스타와 같은 먹튀우려도 있고, 토종은행 이미지가 강한 우리은행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당신의 은퇴준비 점수는? 각자의 은퇴준비상태와 은퇴 철학을 반영한 은퇴설계시스템이 나왔다. 27일 신한은행은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과 필요자금부터 은퇴철학까지 반영한 은퇴설계시스템 'S-미래설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진원(가운데) 신한은행장이 은퇴설계 고객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한 미래설계 시스템(S-미래설계)을 활용해 직원과 함께 상담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시중銀 직원 횡령액 1000억 넘어

외환은행 509억으로 절반이상 차지 '불명예'

지난 5년간 시중은행 직원들의 횡령유용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 시중은행 직원 173명이 1056억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88억원은 아직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됐다.

은행별로 보면 외환은행의 횡령유용금액이 50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509억원의 횡령유용금액 중 회수금액은 2억37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외환은행은 횡령유용금 중 506억6000여만을 여전히 미회수한 상태다.

이밖에 농협은행이 159억원, 우리은행 115억원, KB국민은행이 112억원으로 횡령유용한 금액이 많았다.

횡령과 유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지난 8월까지 모두 42건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29건, 신한은행 26건, KB국민은행 16건 순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전세계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환골탈태 수준의 금융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은 수많은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빅데이터로 고객 잡기 경쟁

신한·삼성·KB 등 카드사 주도권 본격화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앞둔 이지훈(29)씨는 데이트 전 휴대폰을 먼저 체크한다. 카드사에서 데이트 장소 주변에 있는 커피숍 정보와 음식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씨는 카드사에서 안내해주는 맛집과 다양한 혜택 등을 통해 성공적인 데이트를 준비할 수 있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자사가 가진 고객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에 활로를 찾고 있다.

빅데이터의 세계로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곳은 신한카드다.

지난 5월 신한카드는 '빅데이터 경영'을 선포하며 22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 모델 '코드 나인'(Code 9)을 소개했다.

이는 다양한 특징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눠 코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카이스트 등과 손잡고 금융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활용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 역시 눈에 띈다.

삼성카드는 빅데이터 기반의 CLO서비스, '삼성카드 LINK'를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내놨다.

'CLO 서비스'란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회원에게 적합한 혜택을 매칭해 주고, 회원이 맘에 드는 혜택을 연결해 두면 별도의 쿠폰 없이도 할인이나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국내 첫 CLO 서비스인 '삼성카드 LINK'성과를 분석한 결과 한 외식 업체 유입 고객 중 86%가 신규 고객이었다"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개인화 마케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고객에게 맞춤형 카드 혜택을 제공하는 '실시간 마케팅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는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롯데카드는 근거리 통신기술인 '비콘(Beacon)'을 통해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비콘은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제품정보와 할인쿠폰, 매장안내 등을 현장에서 바로 제공한다.

한편 객관적인 통계 수치에 기반한 새로운 외식정보 서비스도 있다. 현대카드의 '마이 메뉴(MY MENU)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그 주인공.

이는 최근 3개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외식 가맹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성별, 연령대, 재방문율, 보유카드 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각사 제공

IMF "미 금리인상 한국 亞국가 중 큰 타격"

아시아국가 중 한국이 미국 통화정책 급변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2015년아시아·태평양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시장 금리가 급등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쇼크'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0.9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중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에 휩싸이면 한국 성장률이 3% 초반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0%, 3.9%로 잡고 있다.

IMF는 이런 내용을 지난 21일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의 공동 콘퍼런스에서 발표했다.

로메인 듀발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팀장은 "한국에 들어오는 자본은 외부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고, 실물경제 부문은 대(對) 미국 수출 둔화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 경제성장률은 0.86%포인트, 아세안 5개국은 0.85%포인트, 중국은 0.7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가 0.15%포인트로, 예상 성장률 하락 폭이 가장 낮다. 한국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

다만 IMF는 "한국이 재정·통화정책을 추가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적절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교보라이프플래닛, 380억 유상증자 추진

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하 교보라이프)이 연말에 38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는 주주배정을 통해 760만주의 신주를 유상증자로 발행한다. 주당 가격은 5000원이며, 신주배정기준일은 다음달 7일이다.

이번 증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신청시 조건인 5년간 1060억원 조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출범 당시 교보라이프는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했다.

교보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증자는 기존에 계획된 설립 5년내 자금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해외선물 아카데미 실시 KDB대우증권은 오는 11월 4~5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해외선물 기초와 모의투자를 통한 실습'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KDB대우증권 제공

저금리 속 배당주 뜬다

3조대 공룡펀드 탄생

저금리 기조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른다. 3조원대 공룡펀드가 등장하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 기대감에 현대차그룹 주식을 대거 쓸어 담았다.

2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배당주펀드의 순자산 합계는 지난 23일 기준 5조443억원으로 연초 2조5932억원보다 무려 95% 늘어났다.

배당주 열풍에 힘입어 순자산이 3조원을 넘는 초대형 펀드도 탄생했다.

'신영밸류고배당(주식)C형'의 순자산은 이 기간 3조12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3조원대 순자산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배당이 기대되는 대형주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대차의 내년 중간배당 검토 소식에 외국인은 바로 다음날인 24일에 현대차그룹 종목 5개를 중심으로 총 381억8000만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를 각각 122억7000만원, 134억8000만원씩 순매수했고 현대건설(62억1000만원), 현대제철(50억원), 현대로템(12억3000만원) 등도 사들였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배당성향 상승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이에 따른 가능성은 긍정적이며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김옥찬씨

민간 출신 내정 첫 사례



SGI서울보증은 27일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옥찬(58·사진)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을 내정했다. 민간출신이 서울보증 사장에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GI서울보증은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최종 면접 후보로 선정된 6명과 7시간이 넘는 면접 끝에 김씨를 단독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김욱기 전 서울보증보험 전무 등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추위는 28일 김 신임 대표 내정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릴 예정이다.

신임 대표는 주총에 주주의 과반이 출석해 찬성하면 공식 선임된다. SGI서울보증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예보가 지분을 93.85% 소유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주총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임 대표로 선임되면 2004년 퇴임한 박해춘 전 사장 이후 10년 만에 서울보증에서 민간 출신 사장이 탄생하는 셈이다.

김 신임 대표 내정자는 서울대사대부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국민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재무관리본부 본부장, 재무관리그룹 부행장, 경영관리그룹 부행장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국민은행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기도 했다.

역대 SGI서울보증 사장은 대부분 관료 출신이었으나 최근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인사에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은 제외됐다.

/김형석기자

먼지 잡는 가전 신제품 속속 출시

환절기 실내 공기 질 개선… 판매량 급증



위닉스 2014년형 에어워셔(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와 일렉트로룩스 옥시즌(두 번째). 필립스 아쿠아트리오 프로(세 번째)와 레이캅코리아의 레이캅 LITE. /위닉스·일렉트로룩스 코리아·필립스코리아·레이캅코리아 제공

올해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실내 공기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전제품 선호가 크게 늘었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닉스의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다. 공기 정화와 가습 기능을 동시에 갖춘 에어워셔 판매량은 660%나 뛰었다.

이에 업체들은 환절기에 접어든 최근 다시 한 번 특수를 노리며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들은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기능을 인증 받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닉스는 2014년형 '위닉스 에어워셔'를 출시하며 헤파필터를 탑재해 검증된 공기청정기능을 추가한 '위닉스 에어워셔 숨 에어'를 내놨다. 이 제품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 공기청정 CA 인증을 획득했으며 기존 제품에 이어 대한산부인과의 사회 추천 인증을 받았다. 또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의 가습 HH인증과 KAA 아토피 안심마크 인증도 갖췄다.

지난 9월 일렉트로룩스가 출시한 '옥시즌'은 스웨덴 천식 알러지 협회와 미국 가전 제조 협회의 인증을 받았다. 이 제품은 항균 시스템, 탈취 카본필터, 공기청정 헤파필터, 플라즈마 이온 발생 장치 등 4단계를 거쳐 공기를 정화한다. 냄새 센서와 먼지 센서로 구성된 스마트 공기 오염 감지 센서는 실내 공기의 미세먼지 정도와 각종 생활 악취·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해 공기 오염도에 따라 자동으로 제품을 작동시킨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청소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지를 잘 청소하는 것이 공기 질을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필립스는 먼지 흡입을 하는 건식 청소에 물을 이용한 습식 청소까지 가능한 청소기 '아쿠아트리오 프로'를 내놨다. 고속 회전하는 브러시가 먼지와 얼룩을 닦아내면 청소기 내부의 진공 모터가 오물을 흡수해 배수통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먼지 배출 걱정을 줄였다. 미세먼지·꽃가루·고양이나 강아지의 털에서 나오는 알레르기 항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성능을 유럽 알러지 협회로부터 인증 받았다.

레이캅코리아가 27일 출시한 침구살균청소기 '레이캅 LITE'는 침구류 관리에 필요한 3가지 기능인 UV램프 살균, 진동펀치, 흡입 등의 '레이클린 메커니즘'을 보다 단순화해 기존 제품보다 간편하게 침구 먼지를 관리할 수 있다. 지난 7월 일본 동경환경알레르기연구소의 실제 침구 사용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구 속 먼지를 5분에 80% 이상 제거하는 흡입률을 입증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IT 결합 '스마트공장' 시대 열린다

75개 솔루션 업체 상담회

첨단 IT 기술을 생산공정에 결합하는 '스마트공장' 시대가 열린다.

산업혁신3.0 중앙추진본부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2014년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설명회와 솔루션 상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공장은 IT·SW, 3D프린팅 등 첨단 제조기술을 생산현장에 맞춤형으로 결합해 생산 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한 생산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 추진과제로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을 추진 중이다.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가 맡아 중요 채널과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곧바로 추진되는 스마트공장 도입은 산업혁신 3.0 2차년도 참여 기업 중 평균경쟁률 4:1을 통과한 263개사(참여 기업의 13%)가 참여한다.

중앙본부는 지난 9월 본부내 '스마트공장 운영팀'을 신설해 부품조립, PCB제작, 주조, 금형 등 10개 업종별 스마트공장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75개 솔루션 업체 모집을 완료했다.

박종갑 산업혁신3.0중앙추진본부 사무국장은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는 국내 중소 제조업이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환경변화가 상존하는 뉴노멀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혁신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지원프로그램과 예산을 꾸준히 확충해 국내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웨어러블 패션 쇼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관에서 '헬스 IT 융합전시회' 부대행사로 열린 웨어러블패션쇼에서 모델이 운동복 웨어러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건강과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헬스 IT 융합전시회'는 사흘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한국, ITU 이사국 7선 성공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7선에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ITU 전권회의'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유효표 167표 중 총 140표를 획득해 13개국의 이사국을 뽑는 아태지역에서 2위로 당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4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9년 ITU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연속 6회 선출됐다. 지난 20년간 ITU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만큼 이사국에 선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상학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우리나라가 ITU ICT 개발지수(IDI) 3년 연속 1위, UN 전자정부 2년 연속 1위에 이어 ITU 이사국 7선에 성공한 것은 글로벌 ICT 강국임을 ITU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ICT 이슈를 주도하고 우리 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중년 재취업 도와 드립니다

전경련 '제빵' '보일러' 기술교육 지원

'제빵, 보일러 관리 기술 배우면 재취업하기 쉽다.'

창업자금이나 특별한 기술이 부족해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가 손을 잡았다.

27일 전경련협력센터 양금승 소장, 동부기술교육원 임령 원장, 조리사관학교 윤경숙 이사장은 '중장년 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에 특화된 기술교육을 통해 재취업 알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부기술교육원은 보일러, 특수용접, 전기공사 등 정규과정과 건물보수, 조경관리와 같은 단기과정을 합쳐 20여개의 산업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해 매년 1400여 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조리사관학교는 외식·관광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실무위주의 조리학교로 명성이 높다. 최근 조리사과정, 제과제빵과정, 소믈리에, 바리스타 등 식음료 과정 외에 중장년 재취업 연계프로그램인 외식산업 중간관리자과정과 K-푸드 관광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을 개설해 기술교육 선택의 폭을 넓혔다.

동부기술교육원, 조리사관학교에서 기능·기술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는 협력센터에 신청하면, 이들 교육기관이 운용하는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을 받고 교육과정 수료 후 협력센터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취업알선, 인턴십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박성훈기자 zen@



27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2가 공개됐다.

고스트 시리즈 2 한국 상륙

겉모습과 시트 개선…아이콘 투어 열려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아이콘 투어 서울'에서 새로운 모델인 '고스트 시리즈 2'를 선보였다.

새 모델은 기본 성능을 유지하면서 헤드램프와 범퍼 등의 디자인을 바꿨고, 앞뒤 시트를 더욱 편안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롤스로이스 모터카 아시아태평양 총괄 디렉터인 폴 해리스는 "이 차는 뒷좌석에 타는 것보다 직접 운전하는 이들에게 알맞은 차"라며 "그동안 '팬텀'을 주력으로 내세웠으나, 2009년 이후 '고스트'와 '레이스'가 등장하면서 오너 층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신차와 함께 등장한 마이클 알렉산더 슈나이더 매니저는 "한국에서 판매 면에서 기록적인 한 해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스트 시리즈 2는 젊은 사업가들이 원하는 차로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롤스로이스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아이콘 투어에서는 1904년 브랜드 초창기부터 현재의 발전과정과 함께, 110년 역사를 이어온 브랜드 유산과 혁신 등이 소개된다.

전시회에서는 고스트 시리즈 2와 함께 전 세계에서 35대만 판매되는 '피나클 트래블 팬텀'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와 함께 롤스로이스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이 전시됐으며, 영국 굿우드 본사에서 초청된 장인이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수작업 공정을 직접 재현했다.

지난 4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도쿄, 홍콩 등 롤스로이스 주요 판매국에서 성공적인 투어를 마치고 서울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이콘 투어는 28일 일반 공개행사에 600명이 넘는 일반 관람객이 사전 등록을 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2014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2014)' 본상을 수상하며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2014년 한 해에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14'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 '2014 IDEA 디자인 어워드' 등에 연이은 수상으로 한국타이어는 기술의 리더십을 통한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에 수상한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2(사진)는 기하학적인 트레드 형상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며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퍼포먼스와 내구성, 에너지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했으며 삼중 트레드 블록을 적용해 고속 주행에 적합한 뛰어난 코너링 성능을 갖추었다. 또한 젖은 노면에서 제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강화하고 소음을 최소화해 다이내믹한 드라이빙과 탁월한 승차감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서승화 부회장은 "국내 타이어 기업 최초로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전부 석권하며 기술력과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 강화에 힘쓰며 리딩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상으로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IDPO, 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가 주최한다.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해마다 100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약 3000건의 제품과 디자인 작품들이 응모되며 디자인과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임의택기자

아파트도 맞춤 설계

GS건설 '미사강변센트럴자이'

GS건설이 자녀의 공부방으로, 아빠의 서재공간으로, 주방살림을 보관하는 펜트리(창고)공간 등 입주민의 가족수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평면을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를 이달 말 미사강변도시에 선보인다.

GS건설은 미사강변도시에 첫 분양으로 준비 중인 '미사강변센트럴자이'에 특화평면인 펜트하우스 16가구와 함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3가지 타입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 평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용 132㎡타입 총 16가구가 공급되는 펜트하우스는 5룸 구조를 기본으로 중앙에 약 14~23㎡의 전용테라스가 놓여 있다. 또한 넉넉한 마스터 드레스룸, 서브 드레스룸 및 서재, 취미실, 맘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다. 특히 29층에 들어서는 펜트하우스에는 약 49~62㎡ 규모의 별도 옥외공간이 제공되어 한강 또는 망월천 조망과 함께 운치 있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미사강변도시 A6블럭에서 분양한 미사강변 푸르지오2차의 전용 114㎡타입(펜트하우스)은 총 4세대 모집에 1순위에서 225명이 몰려 평균 5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신도시 내에서 상품성이 뛰어난 특화평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전용 ▲91㎡ ▲96㎡ ▲101㎡ 타입별로 발코니 확장시 가족수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녀방 ▲드레스룸 또는 주방 펜트리 등 수납공간 ▲서재, 맘



거실의 개방감과 여유로운 주방설계를 위해 방 대신 대형 펜트리와 맘스룸 공간으로 꾸민 96A㎡타입의 주방. /GS건설 제공

스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룸 공간 등 3가지 선택사항을 두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73가구가 공급되는 전용▲91㎡타입은 3룸을 기본으로 마스터존을 강화한 설계를 선보인다. 안방 쪽으로 알파 공간이 제공되는데, 이 공간은 ▲가족실 ▲서재나 취미실로 활용가능한 멀티룸 ▲옷이나 이불 등을 보관할 넓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총 798가구로 구성된 전용▲96㎡타입은 여유로운 주방과 넓은 거실의 개방감을 강조한 설계가 특징이다. 4룸을 기본형으로, 방 하나를 가족수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녀방 ▲대형 펜트리공간 ▲서재나 맘스룸으로 활용하는 멀티룸 등으로 선택가능하다.

135가구가 공급되는 전용▲101㎡타입은 3면 개방형 구조로, 4룸 구조에 총 54.7㎡의 넓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된다. 주방팬트리와 알파공간이 별도로 계획돼 한층 넉넉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알파공간은▲가족실 ▲서재, 맘스룸 등 멀티룸▲드레스룸, 또는 주방 펜트리 등 수납공간 등으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경량 아웃도어화, 내구성 차이 커"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소비자원에서 한 관계자가 경량 아웃도어화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량 아웃도어화 10개 브랜드 제품(2014년 출시·크기 270㎜)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비교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티브로드는 케이블업계 최초로 '스마트 UHD 셋톱박스'를 상용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티브로드 제공

'스마트 UHD 셋톱박스' 상용화

티브로드, 업계 최초… 화질 경쟁 본격화

티브로드가 케이블 업계 최초로 풀HD보다 4배 더 선명한 초고화질(UHD) 4K 셋톱박스를 출시한다. 이로써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도 '화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티브로드는 올해 4월 말 케이블 업계 공동으로 셋톱박스 없이도 UHD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 방식의 UHD 셋톱프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어 이번 UHD 셋톱박스 출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UH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티브로드 디지털 방송 고객이라면 누구나 월 3000원(3년 약정)만 추가하면 UHD 4K 셋톱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연말까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된 UHD 셋톱박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디지털 HD 셋톱박스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점이다. 우선 티브로드의 스마트 UHD 셋톱박스는 자동해상도 조절기능을 갖추고 있어 과거의 8비트, 30프레임의 TV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의 디지털 셋톱박스보다 메뉴 탐색 등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TV시청 원격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녀의 TV시청 안심지도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시청연령등급 설정, 성인 채널 건너뜀, TV잠금 설정 등 다양한 시청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현재 자녀가 어떤 채널,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지 바로 확인해 원격 조정으로 제어할 수 있다. 검색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자 음성으로 원하는 프로그램과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음성 검색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이사는 "이번 티브로드의 UHD 셋톱박스 출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화질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선명한 화질과 한발 앞선 실용적인 서비스 차별화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성취보다는 직업안정이 우선

구직자 가치관 변화

직업안정성·여유·성취·금전….

한국고용정보원이 105개 직업군의 성인 재직 근로자 3148명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을 검사한 결과, 이같은 순서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직업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13가지 항목에 대한 개인의 중요도를 측정한 이번 검사에서 근로자들은 직업안정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몸과 마음의 여유(2위), 성취(3위), 금전적 보상(4위)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안정과 여유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직업안정은 3위에서 1위로, 금전적 보상은 7위에서 4위로 올랐다. 반면 10년 전 1위였던 성취는 3위로, 봉사는 10위에서 11위로, 애국은 11위에서 13위로 하락했다.

이는 자신의 일을 통해 타인이나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로움을 중시하는 경향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효남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계약직이 늘고 40~50대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환경이 변하면서 구직자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 등은 고용안정과 정년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취업될 때까지 졸업 미룬다"

대학생, 공백 불리 5학년은 기본… 등록금 등 부담 심각

#K대학교 사회학과 박모(27)씨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이지만 졸업을 한학기 더 늦췄다. 올 하반기 공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졸업을 유예한 것이다. 졸업 요건인 토익 점수는 일찌감치 확보해 두었지만 학교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했다. 박씨는 "졸업 후 공백이 길어지면 면접 때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채용전제형 인턴십 대상자가 주로 졸업예정자라 학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 실패에 따른 공백 부담으로 졸업 유예를 택하는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취업 준비생 46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1.97%가 대학 졸업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졸업을 연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졸업 전 취업 실패'(56.14%)였다. 이어 '기업 채용 시 기졸업생 기피 현상'(22.81%),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10.53%), '진로 미결정'(5.26%) 등이 거론됐다. C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모(25)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 더 불안할 것 같다"며 "요즘 4년 이내에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많지 않다. 휴학과 복수전공, 취업 문제로 대부분 학교를 5년 이상씩 다닌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대치동 단대부고에서 삼성그룹의 공개채용 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른 응시생들이 학교를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졸업 유예 방법으로는 '졸업 연기 신청'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수 학점 덜 채우기'(27.27%), '졸업어학성적 미충족'(11.36%), '졸업논문 미제출'(6.82%) 등도 대표적인 졸업 유예 수단이었다. 졸업 연기를 위해 멀쩡히 이수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도 4.55%나 됐다.

대학교마다 졸업 유예 방법이 상이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한학기에 한개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권고한다. 이때 수강등록을 위해 등록금을 필수로 납부해야 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과목당 최소 수강 비용은 '10만~20만원'이 41.86%로 가장 많았다. '30만~50만원'은 27.91%, '20만~30만원'이 20.93%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졸업 유예에 지출되고 있었다. 돈을 내고 대학생 신분을 연장하는 셈이다. 응답자의 36.72%는 "졸업 유예를 위한 수강 신청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다.

커리어 관계자는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면서 원치 않는 추가 학점을 듣는 등 개인적·사회적 비용 소모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구직자의 편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직업능력개발원 시연관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 마련된 직업능력개발원 시연관에서 한 관계자가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접 합격 결정 18분이면 끝

구직자의 절반 이상은 면접에서 합격 명운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8%가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하고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면접관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분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10분 미만'이 2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15분 미만'(17.1%), '25~30분 미만'(14.7%) 순이었다.

면접에서는 합격보다 불합격되는 구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의 45.3%는 '불합격이 더 많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7.7%, '합격이 더 많다'는 27.1%의 답변을 얻는 등 면접이 합격 관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한편 면접 당락이 결정된 뒤 면접 진행에 대해 합격으로 결정되면 '예정보다 면접을 길게 끝낸다'(45.9%)는 응답이, 불합격으로 결정되면 '짧게 끝낸다'(78.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장윤희기자

"백혈병 환아, 여배우의 꿈 이루다"

세인母 "딸을 위한 깜짝 행사에 감동"

지난 27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센터시티점아트홀에선 특별한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 단 1명의 소녀를 위해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갤러리아백화점(대표 박세훈)과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이 뜻을 모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아 김세인(14)양을 위해 준비했다.

세인이는 지난 2012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차도가 없어 결국 지난해 여름 친동생으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았다.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초조하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세인이의 꿈은 영화배우다. 이런 내용을 들은 갤러리아 측은 세인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디션부터 촬영 준비 등 전 과정을 영화로 제작하는 것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영화 제작에는 브라운아이드소울·신화·미스에이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에이프릴샤워필름의 송원영 감독이 참여했다. 세인이의 소식을 접한 MBC드라미아가 장소를, MBC의상실에서 의상을 협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27일 갤러리아센터시티 아트홀에서는 1명의 소녀를 위한 뜻깊은 영화시사회가 열렸다. 영화배우가 소원이었던 백혈병 환아 김세인(14)양을 주인공으로 제작한 깜짝 단편영화 시사회가 열려 잔잔한 감동을 전한 것이다. 이날 영화시사회 직후 송원영 영화감독은 다음 작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캐스팅할 것이라며 세인양에게 희망을 줘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갤러리아 백화점 제공

이날 갤러리아센터시티에서 진행된 첫 시사회에는 갤러리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특히 방문 고객들도 행사 취지를 듣고 함께 자리해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종이 비행기를 전달했다.

세인이의 어머니 이융(44)씨는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된 영화의 시사회인줄 알고 왔는데 세인이를 위해 깜짝 행사를 열어줘서 갤러리아와 그 외의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인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 영화배우라는 꿈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갖게됐고, 원래의 밝았던 성격을 되찾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 감독은 다음 작품에 세인이를 비중있는 역할로 캐스팅한다는 출연계약서와 함께 이날 단편 영화 주인공으로 등장한 세인이에게 여우주연상도 시상해 박수를 받았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유통업계 '독도의 날' 이벤트 호평

역사 의식 제고·애국심 고취로 매출↑

지난 25일은 최근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자국민들에게까지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온 뜻깊은 '독도의 날' 이었다. 국내 유통 업체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독도 후원 행사를 열어 호평을 받고 있다.

편의점 'CU(씨유)'는 지난 8월 우리 땅 독도를 후원하는 'CU 독도후원 교통카드'(사진)를 선보였다. CU는 2012년 국내 독자 브랜드 전환 이후 지속적인 독도 수호와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CU 독도후원 교통카드'는 '교통카드'와 'CU멤버십 카드'가 결합돼 CU 매장에서 결제와 동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선불카드다. 해당 카드로 결제된 매출 이익액의 1%가 독도 후원 기금으로 적립된다.

처음 CU 측이 이 카드를 출시했을때 일부에선 진부한 마케팅이 아니냐는 염려 섞인 말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현재 전국 8200여 CU 매장에서 판매되는 교통카드 중 'CU독도후원 교통카드' 판매량은 10월 초 현재 전체 판매량의 51.4%를 차지할 정도다. 출시 전 후 한 달 전체 교통카드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도 판매량이 10.8%나 깜짝 상승했다.

모닝글로리는 지난 2013년 4월 우리 땅 독도를 알리고자 '독도지우개'를 출시했었다. 이 제품은 출시 3개월 만에 1차 입고분 완판을 기록했고 1년만에 1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13일 '독도지우개' 수익금 1000만원을 독도사랑운동본부에 기부했다.

/정영일기자 prms@

김한수 이대목동병원 교수, 연구비 수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제 연구 선정

김한수(사진) 이대목동병원 교수팀(김한수 이비인후과·박윤신 분자의과학교실 교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어 가능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용 편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라는 과제로 첨단 의료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 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김 교수팀은 그동안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제 개발을 위해 동물 모델 실험으로 편도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연구해왔다. 이번 연구비 수혜를 통해 임상에 적용 가능한 치료제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수는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은 다른 질병에 비해 마땅한 호르몬 치료제가 없어 난치성 질환으로 구분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창립26주년 맞이 대축제'

구이메뉴 시킨 양만큼 무료포장
와인·곰탕 1+1 덤 증정 이벤트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창립 26주년을 맞아 진행중인 '1+1 감사대축제'에 알뜰하게 외식을 즐기려는 가족단위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고양 늘봄농원점의 경우 국내 최초의 아이패드 화가 정병길씨 등이 참가한 '즐거운 아이패드 화가 초대전'(사진)을 비롯해 즉석 커리커쳐·초상화 등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강술래 측은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11월 14일까지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 구이메뉴를 시키거나 한우불고기·돼지고기 구이메뉴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수만큼 무료 증정하고 있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준다.

단 매장 행사의 경우 해피아워와 정식류는 제외되며 신림·시흥점은 주중에만 행사를 진행한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100% 한우로 우려낸 환절기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도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또 매장에서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 1병을 시키면 결재 때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와인 1병을 무료 증정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정영일기자

핼러윈 데이 캐릭터 의상 등 불티

파티용품·소품 할인 기획전 잇따라 열려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미국의 기념일이지만 점차 이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파티용품 등이 특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는 각종 의상과 파티용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을 준비했다.

롯데닷컴은 31일까지 어린이 파티의상 전문 브랜드 '좋은아이'의 아동용 핼러윈 의상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호박 모형 소품'을 증정한다. 또, 겨울왕국(사진)·백설공주·슈퍼맨 등 만화 속 주인공 코스튬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도 마련했다.

옥션의 아동의류전문관 키즈가로수길에서는 '해피 핼러윈 패스티벌' 코너를 마련했다. 코스튬 의상을 38% 할인하며 파티 소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G마켓은 해외직구 코너를 통해 기획전을 열며, AK몰은 31일까지 최대 15% 할인하는 '2014 핼러윈 나이트 할인전'을 기획했다.

한편 핼러윈 파티를 기획하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늘면서 10월 들어(10월 1~20일) 어린이용 파티 의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롯데닷컴에서는 아동용 의상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 늘었다.

박영운 롯데닷컴 MD는 "올해는 만화 겨울왕국의 엘사·포봇이나 트랜스포머·스파이더맨·아이언맨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의상과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핼러윈 데이 파티에 동참하는 성인도 늘었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20~30대의 핼러윈 용품 구매가 지난해 보다 78% 급증했다.

현효경 11번가 패션MD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올나잇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인기를 끌면서 영어유치원에서 시작된 열풍에 젊은 소비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우리 아이 '월동준비' 하세요

때 이른 추위에 아동용품 불티
털조끼·겨울침구 등 할인 행사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벌써부터 겨울용 아동복과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유아 패션 브랜드 킨더스펠은 10월 들어 겨울용 스카프빕(턱받이)이 9월 보다 15배나 많이 팔렸다고 27일 밝혔다.

실내·외에서 가볍게 걸칠 수 있는 '털조끼'의 경우 이달 들어 준비된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보습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오가닉 스킨케어 브랜드 에바비바에서는 환절기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로션과 크림이 베스트셀러 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휴대가 간편한 립앤칙밤, 오일과 버터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겨울 제품을 찾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들은 발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하고, 할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유아동 침구 브랜드 밀로앤개비는 이불솜을 넣고 뺄 수 있는 '키즈침구세트'를 내놨다. 키즈침구세트는 숨을 쉬는 섬유로 잘 알려진 텐셀 소재로 만들어 자면서 흘리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발산시켜 쾌적한 수면을 돕는다. 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 줄 커튼도 침구세트와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유아패션 용품 전문몰 쁘띠엘린은 다음달 9일까지 신상 특별 할인전을 실시한다.

에티튜드·밀로앤개비·쿠나텐트 등 인기 브랜드와 함께 의류·침구 브랜드도 참여해 눈길을 끈다. 키즈 액세서리 브랜드 듀이스트의 '앙골라 케이프', 킨더스펠의 '스노우햇'과 '스노우부츠 세트'를 각각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쁘띠엘린 관계자는 "일주일마다 할인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 눈여겨 봤던 제품이 있으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아메리칸 스타일' 패션 큰 관심

편안함·트렌디함 고루 갖춘 미국 브랜드 인기

'아메리칸 스타일'이 패션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유럽 스타일에 식상한 디자이너들과 패션리더들이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아메리칸 스타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미국의 패션은 기성복과 스포츠웨어 시장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구축, 전 세계 패션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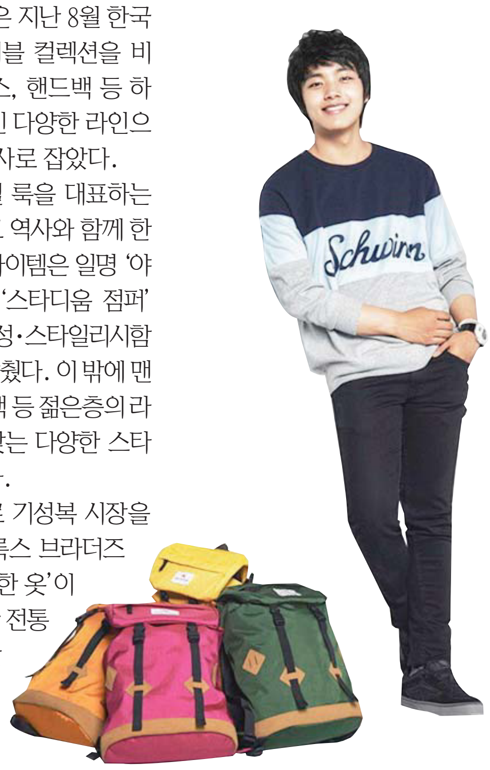
특히 이번 시즌 '놈코어(Normcore·지극히 평범함을 추구하는 스타일)'가 유행하면서 편안함과 트렌디함을 고루 갖춘 아메리칸 스타일의 브랜드가 대세로 떠올랐다.

1978년 시카고에서 론칭한 하이시에라는 스포츠·캠핑 등에 관심이 많은 10~20대를 위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국내에는 지난 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캐주얼한 스쿨백과 스케이트 백팩·캐리어 등 다양한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고품질에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대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탄생한 하트만은 140년 전통의 장인정신을 이어온 아메리칸 헤리티지 명품 가방 브랜드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혁신적인 기능성을 갖춰 미국 상류층의 사랑을 받아온 하트만은 지난 8월 한국에 상륙했다. 트레블 컬렉션을 비롯해 브리프 케이스, 핸드백 등 하트만의 철학이 담긴 다양한 라인으로 패션 피플들을 사로 잡았다.

스트리트 캐주얼 룩을 대표하는 MLB는 메이저리그 역사와 함께 한다. MLB의 주력 아이템은 일명 '야구점퍼'로 불리는 '스타디움 점퍼'로 편안함과 실용성·스타일리시함 등 3박자를 두루 갖췄다. 이 밖에 맨투맨 티셔츠·스냅백 등 젊은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는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성복 시장을 개척한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즈는 '미국 신사를 위한 옷'이라 불리며 아메리칸 전통 포멀룩을 선도해 왔다. 링컨·케네디 등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명사들도 즐겨 입은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수트,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셔츠, 습기많은 한국의 기후에 적합한 쿨 울 수트 등 클래식하면서 실용적인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낙하산 소재로 만든 재킷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파라슈트 다운 재킷' 출시를 알리기 위한 사진행사를 하고 있다. 2014 가을-겨울 신제품 '파라슈트 다운 재킷'은 찢기거나 당기는 힘에 강한 낙하산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매우 우수한 다운 재킷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손진영기자 son@

'에버콜라겐 UV케어' GS홈쇼핑 판매

피부 보습·눈가주름 개선 효과 알려져



뉴트리는 먹는 콜라겐 '에버콜라겐 유브이(UV)케어'를 30일 오전 8시15분 GS홈쇼핑을 통해 론칭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버콜라겐 유브이케어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전문업체인 뉴트리가 10여 년 연구 끝에 개발한 '나노펩타이드' 제품으로 피부보습과 자외선 손상 피부개선, 주름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주원료인 '저분자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중 기능성 콜라겐 원료로 인정됐으며, 먹는 콜라겐펩타이드 중 가장 작아 세포 내 흡수가 잘 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피부 속(진피층)에서 피부의 구성요소인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등을 만드는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부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고 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에버콜라겐 유브이케어'는 100%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인체적용 시험을 한 한국인 맞춤형 제품이다.

뉴트리는 론칭 기념으로 2박스(16주 분)를 기존 1박스(8주 분) 가격인 17만8000원으로 구성해 특별 판매한다. 제품은 방송 전 GS홈쇼핑 온라인몰(with.gsshop.com)에서 미리 구입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미래의 '뷰티 마케터' 모여라

화장품 브랜드, 대학생 마케터 모집 잇따라

뷰티 브랜드들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잇따라 모집한다. 업계 관계자는 "서포터즈 운영은 '미래의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윈윈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다음 달 10일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참여형 서포터즈 '초록프렌즈' 2기를 모집한다.

상품기획·온라인 홍보·마케팅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30명을 선발하며 뷰티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초록프렌즈는 12월부터 3개월 동안 개인·팀 미션을 통해 신제품 기획·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매월 주력 제품과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 3명에게는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마몽드는 11월 2일까지 마몽드의 플라워 스토리를 알릴 대학생 글로벌 마케터 'Bloom 美'를 뽑는다.

뷰티 산업과 글로벌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글로벌·기획·디자인 부분에 각 5명씩 총 15명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부터 약 4개월간 마몽드 글로벌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에 참여하고 마몽드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마케팅팀 실무진의 멘토링과 피드백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마케팅을 직접 배울 수 있다. /박지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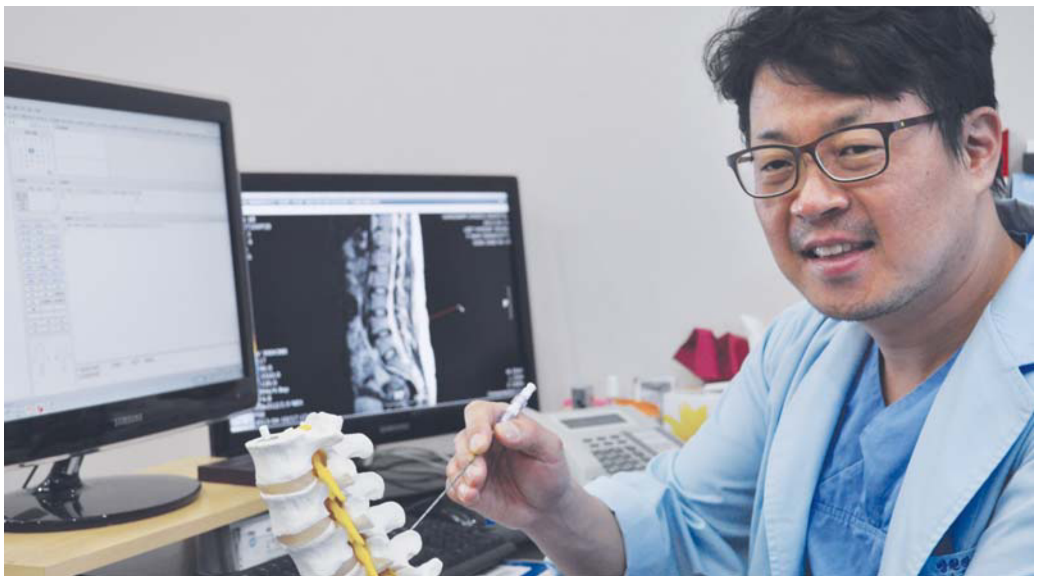

A MUSICAL BY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당신이 선택한 영웅, 세상이 기다린 그가 온다.
ZORRO®
THE MUSICAL
Final Ticket Open 11.5
2014.12.5~2015.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서영주 홍경수 조순창 김우형 휘성 박성환 Key 서지영 최미용 김여진 선데이 외
| 프로듀서 김선미 | 연출 왕용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안무 홍유선 | 무대디자인 서숙진 | 조명디자인 민경수 | 음향디자인 양석호 | 분장디자인 양희선 | 의상디자인 김지연 | 영상디자인 박준 | 소품디자인 김상희 |
투자 하나투어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하나 Free 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FEATURING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BOOK AND LYRICS BY STEPHEN CLARK MUSIC CO-COMPOSITION / ADAPTATION, ORCHESTRATIONS AND ARRANGEMENTS BY JOHN CAMERON
ORIGINAL PRODUCTION CO-CREATED AND DIRECTED BY CHRISTOPHER RENSHAW
EXECUTIVE PRODUCERS: JOHN GERTZ, ADAM KENWRIGHT AND NANCY LARSON, GENERAL MANAGEMENT BY WILLEM METZ
WMM

MBC '불만제로UP' 스타 마케팅 척추관절병원 실태 고발

치료는 어디로?

지난 8일 '척추관절병원의 두 얼굴'이란 주제로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이하 불만제로)에서는 일부 척추전문병원들의 실태가 낱낱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불만제로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광고모델로 쓰는 척추관절병원의 신경성형술의 실체와 실험군을 통한 무리한 수술의 후유증을 소개했다. 또 방송은 허리 통증을 앓고 있거나 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들을 찾아가 척추관절병원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다.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완치 혹은 완쾌가 가능하다는 병원들의 설명에 따라 시술에 응한 환자들은 현재 후유증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환자 맞춤형 시술이 아닌 과도한 마케팅 광고 비용을 충원하기 위해 가격이 비싸고 무리한 시술 방식이 행해져 환자의 후유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디스크 중기에 약간의 협착 증상은 간단한 신경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스타들을 내세우는 병원들은 꼬리뼈 신경 성형술과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 치료술, 고주파 열 치료술 등 가격이 비싼 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전문 의사들의 상업적인 횡포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가져야 하는 윤리와 양심, 책임 역시 잊혀진지 오래다.

사실 척추는 민감한 부위고 수술 후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양심적이고 정직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 경험이 풍부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과잉 진료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권하는 병원을 가야 한다.

본 기자가 관련업계를 수소문해 찾은 병원 중에는 스타들을 상업적인 광고모델로 쓰지 않고 수많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서 유명세를 얻은 병원이 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Mnet '댄싱9 시즌2'의 지정 병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강남초이스병원이다. 이 병원은 1대 1 전담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가수 김종국과 휘성, 배우 윤계상과 방송인 지석진 등이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양심과 정직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와 도수·운동·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1대 4 맞춤 시스템도 갖췄다. 특히 무리한 수술보다는 비수술 치료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강남초이스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척추전문병원 중 거의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대신 국민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신경치료술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의료진을 구성했다.

게다가 강남초이스병원이 자랑하는 고주파 특수내시경 시술은 부작용이 많은 고주파 수핵 감압술 또는 열치료보다 진화된 치료법이다. 직경이 가는 특수 내시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고주파로 디스크를 제자리에 수축·응고시키는 치료로 부작용과 후유증이 거의 없다. 병원을 찾은 1만여명 이상의 환자의 만족도 역시 95%가 넘는다.

조성태(사진)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연예인과 스타들을 광고로 쓰면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환자들을 기만하는 병원들로 인해 의사의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디스크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병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전에는 질환이나 나이, 증상에 따라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 최고의 결과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강서점 02)2698-22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동아오츠카, 청소년스포츠 문화의 장 마련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가 지난 26일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내 축구장에서 11일부터 진행된 중학교 풋살대항전 '제1회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FUTSAL HEROES 2014' 결승전과 부대 이벤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회사의 청소년스포츠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삼, 불임 남성 치료에 효과적

학회, '국제인삼심포지엄'서 효능 밝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임과 불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인삼이 남성에게서 발현될 수 있는 불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인삼학회(회장 김시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국제인삼심포지엄' 개최를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성의 난임과 현대인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질환에 고려인삼의 여러 효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려홍삼이 정자 수와 질에 미치는 효과(김시관 건국대 의료생명대 교수)▲인삼의 정자 질과 활동성 개선 효과(토마소 카이 이탈리아 산타키아라 병원 비뇨기과 교수) ▲홍삼의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강상무 미국 조지아주립대 염증·면역·감염센터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고환 기능 감퇴에 효과적인 홍삼 효능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 김 교수는 정자 수 부족과 약정자증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홍삼의 남성 난임 개선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고환 장애 기니피그와 쥐를 대상으로 홍삼 추출물을 투약했으며 홍삼이 고환 기능 장애와 정자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홍삼이 효소·비효소적 항산화 분자의 발현을 촉진해 활성산소증으로 야기되는 고환 세포 손상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화나 항암제로 야기되는 혈중 성호르몬 함량의 불균형 역시 유의하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토마소 카이 교수는 클라미디아 크라코마티스 감염으로 인한 만성 전립선염에서 발생한 감소무력기형정자증과 같은 성기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20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팀은 환자들에게 2주간 퀴놀론계 항생제 600㎎을 투약하고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험군에만 인삼복합제재를 6개월간 추가로 병행 투약했다. 투약 후 두 그룹의 정자 농도와 운동성을 비교한 결과 항생제와 인삼복합제재를 병행 투약한 실험군에서 유의한 정자 질 개선 효과가 발견됐다.

토마소 카이 교수는 "의약품만으로도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성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자 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염증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인삼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14개국에서 300여편의 연구가 발표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발라드 부르는 아이돌’의 귀환

정규 3집 ‘렛츠 토크’ 발표하는 그룹 2AM

‘발라드 부르는 아이돌’ 2AM(창민·조권·슬옹·진운)이 돌아왔다. 뮤지컬·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네 남자는 본업인 가수로 돌아와 약 1년 7개월 만에 정규 3집 ‘렛츠 토크(Let's Talk)’를 발표한다. 2AM은 “부담감도 있지만 설렘이 더 크다”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들은 27일 선공개곡 ‘오늘따라’를 시작으로 30일 타이틀곡 ‘나타나주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멤버들 의견 가장 많이 녹아있는 앨범
쟁쟁한 선배들과 경쟁하는 것은 ‘영광’
힘든 시기 함께 지내며 더욱 돈독해져

◆ 오랜만에 멤버 전원이 모였다. 기분이 어떠한가.

“작년 이맘때쯤 발표한 ‘후회할거야’는 방송을 거의 타지 못 했다. 이번에는 음악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할 예정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다(웃음). 앨범을 낼 때면 늘 기대 반 설렘 반인데 이번은 확실히 설렘이 더 크다. 물론 성적도 신경 쓰인다.” (조권)

“오랜만이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다. 성적은 좋으면 물론 좋다. 요즘은 음원 차트에 오른 걸 한꺼번에 ‘전체듣기’로 듣는 분들도 많으니 차트에 오르면 좋지 않을까.” (창민)

◆ ‘오늘따라’ 뮤직비디오에 배우 박영지가 등장해 립싱크를 하는 것이 신선하다.

“MBC 드라마 ‘호텔킹’에서 아버지 역으로 출연해주신 것이 인연이 돼 부탁드렸다. 지나간 연인을 추억하는 것이 꼭 젊은이여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중년 남성도 어느 날 문득 아주 오래전 사랑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슬옹)

◆ 올 가을 쟁쟁한 선배들이 대거 컴백했다. 부담스럽지 않은가.

“부담스러워도 좋다. 이번 달에 1등을 해야 올해 1등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선배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좋은 노래가 많으니 자극도 된다.” (슬옹)

“슬옹이 형이랑 서태지 선배의 크리스말로윈 공연 실황 생중계도 챙겨봤다. 중간에 끊겨서 너무 아쉬웠다. 선배들의 무대 구성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운다.” (진운)

◆ 앨범 제목인 ‘렛츠 토크’는 무슨 의미인가.

“이름 그대로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의 음반이다. 총 14개 트랙으로 구성돼 있는데 온라인 음원 공개는 13곡만 할 예정이다. 나머지 한 곡은 CD에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간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JYP 역사상 가장 많은 노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고심 끝에 13곡을 추렸다.” (조권)

“타이틀 ‘나타나주라’는 조규만·조규천 작곡가가 만든 노래다. 이번 앨범 수록곡은 사실 모두 타이틀곡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래들이다. 그래서 수록곡 모두 다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슬옹)

◆ 이번 앨범에는 멤버 솔로곡도 있다. 각자 참여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이제까지 활동하면서 멤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앨범이다. 내 솔로곡의 장르는 록이다. 정진운 밴드랑 함께 했는데 2AM의 음악색깔과 많이 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진운)

“R&B를 좋아해서 회사 작곡가 친구와 함께 작업했다. ‘19금’ 가사에 도전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슬옹)

◆ 멤버 조권은 ‘깝권’으로 예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에도 볼 수 있을까.

“돌아다니면 어머님들께서 ‘요즘 TV에 잘 안 보이네’하신다. 그럴 때면 ‘내가 깝권으로 많이 알려졌구나’하고 느낀다. 물론 예능 활동을 즐겼고 행복했지만 본업인 가수로서 진지하게 음악을 할 때는 반대로 ‘깝권’ 이미지 때문에 고민도 했다. 그래서 예능을 조금씩 줄였다. 지금도 예능을 할 수 있지만 관절이 예전 같지 않다(웃음).” (조권)

◆ 벌써 데뷔 7년차다. 오래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데뷔 당시 발라드를 부르는 아이돌 그룹이 없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화제를 모으기 위해 근육도 키워보고 예능이나 라디오까지 무엇 하나 건성으로 한 것이 없었다. 힘들수록 넷이 더욱 똘똘 뭉치게 됐다. 그것이 현재의 우리를 만든 것 같다.” (슬옹)

◆ 데뷔 10주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창민이 형 빼곤 모두 군대에 있지 않을까.” (조권·슬옹·진운)

“나는 아마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을 것 같다. 올해로 예비역 6년차다.” (창민)

“창민이 형은 우리 군대 간 사이에 옴므2, 옴므3 활동하면 되겠다(웃음).” (조권)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굿바이…눈물로 보내는 '마왕'

가수 신해철 27일 오후 8시 19분 끝내 숨져…향년 46세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에 한 획을 그은 '마왕' 가수 신해철(사진)이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

신해철은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다. 의료진은 심정지 원인을 찾기 위해 장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진료 차 분당 A병원에 내방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 가락동 S병원으로 이동해 각종 검사 후 장협착에 관한 수술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19일 퇴원했지만 20일 새벽 수술부위 통증과 미열 발생으로 S병원에 방문해 진료 후 퇴원했다. 이후 22일 새벽 복부 및 흉부 통증으로 S병원에 입원했으나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해철은 복강 내 장수술 및 심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와 밴드 '넥스트'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카페', '인형의 기사', '일상으로의 초대', '날아라 병아리', '해에게서 소년에게',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Here I Stand For You', '도시인', '내 마음 깊은 곳의 너', 'Hope',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절망에 관하여',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 등 셀 수도 없는 히트곡을 내며 한국 록과 대중음악에 한 획을 그었다.

끊임없이 음악적 변신과 사회성 짙은 가사로 의식 있는 뮤지션이라는 찬사도 받았던 그다. 1992년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 1997년 해체되기까지 총 4집을 발표하며 1990년대를 대표하는 록그룹으로 로큰롤 음악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1997년 밴드 해체를 선언한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음악과 프로듀싱을 공부했다. 그 즈음해서 '크롬', '모노크롬',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며 전자 음악 사운드를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였다. 2000년 들어서 그는 다시 넥스트와 솔로 뮤지션으로서 앨범을 꾸준히 발표했다.

MBC '100분 토론'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간통제 폐지를 찬성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라디오 디제이 활동에서 보여준 카리스마로 팬으로부터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 6월 신해철은 오랜 공백을 깨고 솔로 6집 '리부트 마이셀프'(Reboot myself)를 발표하며 가요계 컴백을 알렸다. 이와 함께 '넥스트유나이티드'를 꾸려 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가요계 안팎의 동료와 선후배들은 신해철의 쾌유를 기원했지만 올들어 가장 추웠던 이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며 모두를 울렸다. 신해철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에 마련됐으며, 조문은 28일 오전 10시부터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엑소 도경수 영화 '카트' 주제가

희망 담은 '외침', 11월 초 음원 서비스

그룹 엑소 멤버 도경수(사진)가 자신이 주연한 영화 '카트'의 주제가를 불렀다.

다음달 13일 개봉하는 '카트'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뒤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도경수는 주인공 선희(염정아)의 아들 태영 역을 맡아 스크린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

그룹 엑소의 메인 보컬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도경수는 이번 영화에서 주제가 '외침'을 직접 불렀다. '외침'은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서로 손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다.

도경수는 "영화로는 첫 데뷔작인데 OST까지 참여하게 돼 더욱 뜻 깊다. '외침'은 영화와 잘 어울리는 노래로 '카트'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와 감동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외침'은 드라마 '겨울연가' '여름향기' '봄의 왈츠', 영화 '실미도' '혈의 누' '마당을 나온 암탉' '건축학개론' 등의 주제곡 및 음악을 맡은 이지수 음악감독의 작품이다. 영화 엔딩 크레딧 곡으로 삽입됐으며 오는 11월 초 뮤직비디오 공개와 함께 디지털 음원 서비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MBC 에브리원 새 드라마 '사랑주파수 37.2' 출연진. 왼쪽부터 최윤소·윤진욱·진현빈·아영. /MBC플러스미디어

막장 홍수 속 따뜻한 로맨스가~

가수 윤건 주연 드라마 '사랑 주파수 37.2'

막장 드라마 홍수 속에서 따뜻한 옴니버스 로맨스 드라마 한 편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다음달 12일 첫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사랑 주파수 37.2'는 실타래처럼 꼬인 청취자들의 사랑이야기를 심리와 함께 풀어내는 옴니버스 형식의 로맨스 드라마다. 나이·이름·학력 등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있는 DJ 캡틴이 주파수를 몰래 훔쳐와 불법으로 해적라디오를 진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DJ 캡틴은 실제 라디오 DJ 경험이 있는 가수 윤건이 연기한다. 윤건은 "DJ 캡틴은 나와 많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 매력을 느꼈다. 비슷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간접적이나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로웠다"며 캐스팅 소감을 전했다.

사연을 보내는 청취자들은 각양각색의 청춘 배우들로 캐스팅했다. 배우들은 매회 청취자이자 사연의 주인공이 돼 새로운 사랑이야기로 극을 이끌어 간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인 고동희 역은 배우 최윤소가 맡았다. 고동희는 극중 연애기간 100일을 넘기지 못하는 '단기 연애녀'다. 고동희의 마음을 훔쳐간 남자친구 송준영은 모델 출신 신예 배우 윤진욱이 연기한다.

또한 첫사랑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훈남' 카페 사장님 강희태 역은 진현빈이 맡았다. 순정남 강희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새로운 여인 정선희 역에는 걸그룹 달샤벳의 아영이 캐스팅됐다.

아영은 "좋은 작품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 매회 새로운 사랑 이야기로 구성되는 드라마인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며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촬영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지민기자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효영
오늘 저녁 7시 45분 tvN 방송 * 매일 {월~목} 방송





마지막까지 허무했던 '끝없는 사랑'

방향 잃은 주제·비현실적 설정…시작 '창대' 끝 '미약'

지난 26일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이 종영했다. 화려한 캐스팅과 연출진이 포진했음에도 조기 종영이라는 굴욕을 겪은 '끝없는 사랑'은 마지막까지 허무했다.

이현직 감독은 방영 전 "남성 드라마가 아니다. 정치를 다루지만 제목처럼 시대를 살아 오는 청춘들의 진실된 사랑을 그릴 것"이라고 작품 색깔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끝없는 사랑'은 정치도 사랑도 그 어느 것 하나 잡지 못했다. 방향 잃은 주제 의식이 작품의 흥행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줬다.

연출진이 말한 사랑은 최종회에서 압축적으로 그려졌다. 시청자는 "37회 동안 왜 본 거지?"라며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배우 정경호가 맡은 한광철이다. 주인공 서인애(황정음)를 끝없이 짝사랑했지만 결국 자신을 좋아했던 김세경(전소민)과 결혼했다. 서인애는 야망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한광훈(류수영)을 끝없이 사랑한다. 더욱이 서인애가 성적 유린을 당해 낳은 딸 에스더는 여전히 한광철을 아빠라고 부른다. 작품은 애매모호한 관계로 끝을 내면서 '만인의 사랑'으로 변질됐다. 제작진이 처음부터 의도한 '끝없는 사랑'의 주체가 서인애였다면 한광철과 김세경의 결말은 불필요하다.

더욱이 작품은 후반부로 갈수록 악덕한 킹메이커 박영태(정웅인)와 총리 부인 민혜린(심혜진)에 의지했다. 최종회는 두 사람의 사랑이 방송 절반을 차지했다. 극은 무게 중심을 잃었다.

'끝없는 사랑'은 서인애의 성장을 담아내겠다는 정치 드라마로 출발했다. 그는 군부 시절 핍박을 이겨내고 여성 법무부장관이라는 꿈을 이뤘다. 그러나 정작 복수의 대상인 박영태는 신분을 감추고 있던 자신의 비서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다. 뿐만 아니라 출연진 모두가 "서인애"만 외치며 정치 이야기를 끌어가는 무리수를 뒀다. 바닷가 마을에 살던 그가 교도소를 드나들다가 여배우로 데뷔하고 정계에 입문해 성공하는 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출연진의 연기력도 온전하지 못했다. 교도소에만 있는 여주인공, 등장할 때마다 미국 고위 관계자와 전화하는 인물 등 공감되지 않는 캐릭터와 허술한 연출 속에서 배우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최대치가 발휘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끝없는 사랑'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이종석

"피노키오" 이종석 vs "왕의 얼굴" 서인국

11월 수목드라마 구원 투수로

배우 이종석과 서인국이 11월 수목드라마로 맞붙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노브레싱'에서 각각 자존심 강한 수영선수와 게으른 수영 천재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한 작품에 출연했다 경쟁하게 된 두 대세 배우의 등장이 4~6%의 저조한 시청률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수목극을 구해낼지 주목된다.

이종석은 SBS 새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사회부 기자 최달포 역을 맡았다.

'피노키오'는 지난해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히트시킨 박혜련 작가와 조수원 PD의 재회로 방영 전부터 화제다. 이종석이 스스로를 배우로 각인시킨 '너의 목소리가 들려'팀과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흥행 재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이종석은 더벅머리에 교복을 입은 촌스러운 모습으로 변신해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종영한 SBS '닥터 이방인'에서 메디컬부터 멜로, 코믹에 이르는 성숙한 연기로 복합 장르의 흐름을 주도하며 흥행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진 바 있다.

'피노키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이 기자가 돼가는 치열한 과정을 담는다.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후속으로 내달 12일 첫 방송 예정이다.

서인국은 KBS2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로 사극에 처음 도전한다.

작품에서 권력 암투를 이겨내고 왕이 되는 세자 광해군으로 분한다. 그는 "광해는 많은 선배들이 매력적으로 그려낸 인물"이라며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되기도 한다. 열심히 해서 서인국만의 광해를 연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09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1' 우승자로 가수로 데뷔한 그는 tvN '응답하라 1997'(2012)에서 배우로 변신해 신드롬을 일으켰다. SBS '주군의 태양'(2013)·tvN '고교처세왕'(2014)으로 흥행력과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서인국이 첫 사극인 '왕의 얼굴'로 장르를 넘나드는 배우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왕의 얼굴'은 광해의 성장과 한 여인을 두고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는 아버지 선조와 아들 광해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는다. '아이언맨' 후속으로 내달 중순 방송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서인국

개성 뚜렷…내가 차세대 유망주

윤진이·류혜영·이유영, 활약 돋보여

자신만의 개성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신예 여배우들이 있다. 윤진이, 류혜영, 이유영이 그들이다. 윤진이는 브라운관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 류혜영은 독립영화를 거쳐 상업영화로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유영은 신인 배우로 해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았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개봉 첫 주말 '나를 찾아서'와 함께 박스오피스 흥행을 이끌며 선전 중이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과 '연애의 발견'을 통해 상큼한 매력으로 사랑 받은 윤진이는 '우리는 형제입니다'로 스크린 첫 주연에 도전했다.

극중에서 윤진이는 기면증을 앓고 있는 방송작가 여일을 연기했다. 주인공 형제 상연(조진웅)과 하연(김성균)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인물로 예상 밖의 코믹 연기를 했다. 연출을 맡은 장진 감독은 "윤진이는 산뜻하고 신선하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오는 30일 개봉하는 '나의 독재자'에는 독립영화로 주목 받은 류혜영이 출연한다. 류혜영은 단편영화 '졸업여행' '숲', 옴니버스 영화 '연애만세' 등을 통해 개성 넘치는 연기력으로 독립영화계의 스타 배우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첫 장편영화 '잉투기'로 관객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나의 독재자'에서 류혜영은 속물 캐릭터인 태식(박해일)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여정 역을 맡았다. 특유의 신선하고 유쾌한 매력으로 작품을 풍성하게 채웠다는 평가다. 이해준 감독은 "'잉투기'에서의 연기를 인상적으로 봐 캐스팅 단계에서 미국에 있던 류혜영과 화상 통화로 오디션을 봤다"며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다음달 20일 개봉 예정인 영화 '봄'은 신인 여배우 이유영의 활약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조각가 준구(박용우)와 헌신적인 아내 정숙(김서형), 누드모델 민경(이유영)에게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그린 영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출신인 이유영은 첫 주연작인 '봄'에서 파격적인 전라 노출까지 감행했다. 지난 5월 밀라노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이름을 알렸다. 또한 내년 개봉 예정인 민규동 감독의 신작 '간신'에도 캐스팅됐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의 윤진이.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영화 '나의 독재자'의 류혜영.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봄'의 이유영. /스튜디오 후크

진정성으로 돌아온 김윤진

'국제시장' 주연…황정민과 호흡

배우 김윤진(사진)이 영화 '국제시장'으로 2년 만에 관객들과 만난다.

1999년 블록버스터 '쉬리'로 데뷔한 김윤진은 '세븐 데이즈' '하모니' '이웃사람' 등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다. 미국 드라마 '로스트'와 '미스트리스'를 통해 할리우드에도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년 만의 영화인 '국제시장'에서 김윤진은 주인공 덕수(황정민)의 영원한 동반자인 영자 역을 맡았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고 며느리이며 어머니인 영자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전한다.

김윤진은 "시나리오부터 완벽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가족영화가 탄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자와 덕수가 함께한 에피소드 곳곳에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윤제균 감독은 "'하모니'를 통해 배우와 제작자로 김윤진을 처음 만났다. 그녀만의 진정성을 '국제시장'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국제시장'은 힘들었던 옛날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는 12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고아성 할리우드 '노크'

애쉬튼 커쳐·우마 서먼과 한솥밥



배우 고아성(사진)이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27일 고아성 소속사 포도어즈엔터테인먼트는 "할리우드의 대표 에이전트사 중 하나인 언타이틀 엔터테인먼트와 고아성이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언타이틀 엔터테인먼트는 애쉬튼 커쳐를 비롯해 우마 서먼, 케이트 허드슨, 엘리자베스 뱅크스, 데이빗 카루소, 데미 무어 등이 소속돼 있는 할리우드 굴지의 에이전트사다.

고아성의 할리우드 진출은 올 여름 '설국열차'가 한국영화 최초로 LA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면서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 포스트가 고아성을 집중조명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6월15일 뉴욕 포스트는 '여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더 시그널'에 출연한 영국 차세대 신성 올리비아 쿡과 고아성을 함께 언급했다.

장두봉 포도어즈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배우 고아성에게 이번 계약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여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아성은 현재 영화 '오피스'를 촬영 중이다.

/장병호기자

한·중 청년 영화인 한자리에

제1회 한중 청년 꿈나눔 단편영화제 성료

CJ 문화재단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 CCTV가 주최하고 CJ E&M, CJ CGV가 주관하는 제1회 한중 청년 꿈나눔 단편영화제가 지난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 23일부터 4일 동안 중국 베이징 CGV에서 펼쳐졌다. 젊은 신인 감독 발굴에 초점을 맞춘 영화제로 한중 양국 문화교류를 이끌어갈 영화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중국 영화사업 창작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중국 청년 감독들의 단편 총 324편이 응모했으며 오기환 감독, 왕샤오슈아이 감독 등 양국 대표 영화인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중국 샤모 감독의 '가물치'가 경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화제 기간 동안 한중 양국 영화인들과 관객, 청년 감독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영화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을 비롯해 CJ 문화재단 이사인 배우 안성기와 왕샤오슈아이 감독, 홍보대사인 배우 윤은혜, 친하오 등이 현장을 찾아 청년 감독들을 응원했다.

이와 함께 오기환 감독과 왕샤오슈아이 감독의 특별대담, 한국과 중국의 신인 영화인 육성 시스템을 주제로 한 관객과의 대화 등 특별 프로그램도 펼쳐졌다. 영화를 통해 양국 영화인과 관객들이 서로 소통하며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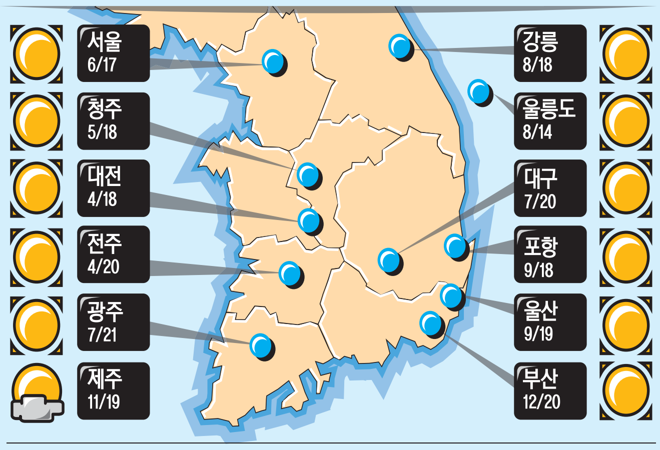
/장병호기자



날씨

10/28 火 일출시각 06:52 일몰시각 17:3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감기는 천식의 급성 악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육신거리는 근육 풀어주는 차 한잔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단풍이 절정이다.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이 때면 등산배낭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을 산행을 나섰다가 기분전환보다 근육통과 관절통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흔히 근육통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주 추위에 노출돼 몸이 경직된다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의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에는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기분전환으로 시작한 가을 산행이 아침을 더욱 버겁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때 활용하면 좋은 본초에는 모과가 있다. 목감기에도 좋지만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경직되고 굳은 곳들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 생 모과를 꿀이나 설탕에 재워 차로 마셔도 좋고 말린 모과를 이용하면 한 번에 많이 끓여둘 수 있어 편하다. 말린 모과를 사서 물 2ℓ에 대추와 함께 넣고 물이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 남을 때까지 중불에서 끓여주면 된다.

운동이나 산행 전후에는 모과차에 생강을 갈아 넣어 마시자. 생강 역시 통증을 완화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탁월한 본초다. 실제 해외 연구 중에는 격렬한 근육운동 후 생강을 먹은 그룹의 근육통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25%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다. 특히 생강은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켜 운동 효과를 더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정기적으로 산행을 한다거나 외부활동이 잦다면 평소 음식이나 음료에 식초를 좀 더 첨가해 먹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식초는 체내의 젖산을 없애는 데 탁월한 식품이다. 젖산은 산행이나 운동을 하면 쌓이는 일종의 피로 물질로 식초는 젖산의 분해를 돕고 젖산이 체내에서 생성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해준다.

식초를 마실 때에는 말린 모과나 생강을 끓인 뒤 식초를 한 숟갈 정도 타서 마셔도 좋고 찬 물에 희석해 마셔도 된다. 음식에 1~2스푼 첨가해도 좋다. 단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 음료는 당이 과도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고, 가능한 초산균을 발효시켜 만드는 천연식초를 이용하는 게 좋다.

/김소형 본초학 박사(김소형 한의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2	4	1		
					1		7	4
6				5		9		
						2	6	5
2								1
1	9	6						
		8		3				7
9	2		4					
		4	2	7		5		

	2		1				3	
		3		8	9			
1					7	2		6
9	6						4	
				9				
	8						9	7
4		9	8					1
			7	5		9		
	7				1		8	

스도쿠 정답

7	3	9	8	2	4	1	5	6
8	5	2	9	6	1	3	7	4
6	4	1	7	5	3	9	8	2
4	8	3	1	9	7	2	6	5
2	7	5	3	4	6	8	9	1
1	9	6	5	8	2	7	4	3
5	1	8	6	3	9	4	2	7
9	2	7	4	1	5	6	3	8
3	6	4	2	7	8	5	1	9

7	2	4	1	6	5	8	3	9
6	5	3	2	8	9	7	1	4
1	9	8	3	4	7	2	5	6
9	6	1	5	7	2	3	4	8
3	4	7	6	9	8	1	2	5
2	8	5	4	1	3	6	9	7
4	3	9	8	2	6	5	7	1
8	1	2	7	5	4	9	6	3
5	7	6	9	3	1	4	8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35살 직장녀, 지인과의 결혼 인연은 특별히 좋고 나쁘고 없어…사귀부터

Q 라벤더~ 여자 79년 1월 6일 음력 해시생

지금까지 인연을 못 만나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저도 부모님께 이제는 불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의 결혼 운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 선생님, 지인과 거래처 두 분 중에 저랑 인연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1973년 07월 23일 양력 태어난 시 모름/ 1978년 02월 26일 양력 태어난 시 모름 이 두 분 중에 제인연이 있는지, 두 분 다 인연과 궁합이 전혀 맞지 않다면 저의 결혼 운은 언제쯤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A 궁합이나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 패턴 등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 연인과 부부로 이어지는데 끝없는 갈등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 복잡 미묘한 남녀관계를 놓고 많은 말들이 회자됩니다. 세 분들 관계가 발전되지 않아 찾아본다면 사상의 목화금수(木火金水)는 각각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 방위가 구분되는데 일상적인 방법을 찾아봅니다. 79년생 양띠인 경우는 목명(木命)에 속하면서 이상적인 연분을 서쪽(西)방향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서 방위 기운을 찾기가 다소 부족 합니다. 기운이 약한 시기에 이성을 만날 때는 행운의 색상으로 흑색(黑色)이 있으며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니 믿고 말고를 떠나 참고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장시간의 백년해로가 아니어도 궁합의 조건은 수만 가지가 있어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과 모든 생활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며 나쁜 것이 많을 때는 고난 속에 결혼생활이 평탄 할 수 없지요. 때를 알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며 알기 때문에 기쁨에 희희낙락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아 행복감이 더 합니다. 때를 알기가 어렵기에 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뚜렷한 남자가 없는데도 계속 찾기도 하여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사주들도 많습니다. 즉 사주 추명을 해보면 개개인의 사주의 그릇이 어느 정도 그릇인지 그리고 언제 잘 되고 언제 힘든지를 알 수 있어 낭비를 적게 해야 하겠으나 어려운 일이지요. 궁합도 마찬가지인데 남자 분들과 궁합이 충돌되는 것은 없으나 딱히 잘 맞지도 않아 생각처럼 마음의 합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 7월까지 지내보다가 인연이 맞는 분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8일 (음 윤 9월 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가족이 한자리 모여 즐겁다. **60년생** 맨땅 헤딩하는 도전은 삼가라. **72년생** 서두르면 내릴 수 없는 배를 탄다. **84년생** 첫 단추만 잘 꿰면 나머지는 술술~.

소 — **49년생** 공돈이 생기니 기대하라. **61년생** 간절히 바라면 뜻은 이루어진다. **73년생** 법정 가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상책~. **85년생** 원하던 정보를 손에 넣는다.

호랑이 — **50년생** 나잇값은 그냥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다. **62년생** 무식을 용감한 것으로 착각 말라. **74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86년생** 좋은 소식이 있으니 기대하라.

토끼 — **51년생** 흥취는 아는 호쾌한 어른이 되라. **63년생** 막말은 막말이 되어 돌아온다. **75년생**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구나. **87년생** 스타처럼 행세하는 벗이 얄밉다.

용 — **52년생** 갈 곳이 많아 바빠진다. **64년생** 부부간에도 흑백은 명확히 가려야. **76년생** 생각이 많으면 찾아온 좋은 기회 놓친다. **88년생** 자기관리에 신경 써라.

뱀 — **53년생**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말라. **65년생** 엉뚱한 변명은 화만 키운다. **77년생** 식당 경영자는 진상고객 조심할 것. **89년생** 변화무쌍한 처신이 필요한 날이다.

말 — **42년생** 불편한 마음은 편안해진다. **54년생** 좋은 일 끝에 나쁜 일도 생기는 법이다. **66년생** 명분 상실한 일은 포기할 것. **78년생** 직장인은 파워가 커질 경사 생긴다.

양 — **43년생** 어설픈 말로 불신 키우지 말라. **55년생** 황금알 낳는 거위를 얻은 격이다. **67년생** 기회 왔을 때 행복의 길 찾아라. **79년생** 원칙 지키면 찬사 받는다.

원숭이 — **44년생** 위안이 될 일이 생긴다. **56년생** 복덩이가 굴러오니 기대하라. **68년생** 보신주의 관행 못 깨면 발전은 없다. **80년생** 부모에 선물로 은혜에 보답해 보자.

닭 — **45년생** 시대착오적 행동은 삼가라. **57년생** 막혔던 일에 활력을 찾는다. **69년생** 뜻을 이루려면 고정관념을 깨라. **81년생**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손해 없다.

개 — **46년생** 남의 일에 참견하면 후회한다. **58년생** 자녀와 웃음 한판이 즐겁구나. **70년생** 마음먹은 일은 빨리 승부 걸어야 좋다. **82년생** 주변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

돼지 — **47년생** 지나간 일은 잊어라. **59년생** 문을 두드리면 감동과 희망이 기다린다. **71년생** 행복과 불행은 늘 붙어 다니는 법~. **83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대타 윤석민의 역전 3점 홈런


윤석민. /연합뉴스

플레이오프 1차전 넥센 먼저 웃다…LG에 6-3 승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넥센이 먼저 웃었다.

넥센 히어로즈는 2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1차전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윤석민의 결승 3점포를 앞세워 6-3으로 승리했다.

6회말 1사 2,3루 상황에서 대타로 타석에 선 윤석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LG의 두 번째 투수 정찬헌을 상대로 스리런를 터뜨렸다. 윤석민은 이날 데일리 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속 151㎞에 이르는 직구로 상대 타선을 압도한 넥센 두 번째 투수 조상우는 2⅔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피칭을 선보여 승리투수가 됐다. 포스트시즌 첫 등판에서 승리를 수확하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선취점은 넥센에서 나왔다. 2회말 선두타자 박병호와 김민성의 안타, 이성열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 찬스를 잡았다. 이어 박헌도의 행운의 안타가 좌중간 적시타로 연결돼 1점을 뽑았다.

반격에 나선 LG는 3회초 넥센 선발 소사를 상대로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손주인과 정성훈의 연속 볼넷, 김용의의 내야안타로 무사 만루 찬스를 잡았다. 곧바로 박용택과 이병규의 안타로 2점을 뽑았다. 대량 득점 찬스였지만 '추월 아웃'을 당하며 찬물을 뒤집어 썼다.

LG는 4회 공격에서도 스나이더의 솔로 홈런을 앞세워 3-1로 달아났다. 우규민의 완벽투에 막혀 5회까지 1-3으로 끌려가던 넥센은 6회 대거 4점을 기록했다.

넥센 선두타자 강정호가 우규민의 오른 발목을 맞히는 내야안타를 때려냈다. 이에 우규민은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내려갔고 이후 넥센 타자들은 바뀐 투수 정찬헌을 끈질기게 공략했다. 김민성이 몸에 맞는 볼을 얻어낸 후 이성열이 우전안타를 쳐 2-3으로 따라 붙었다.

곧바로 서동욱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를 만든 넥센은 대타 윤석민의 우월 3점포에 힘입어 5-3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윤석민은 정찬헌의 높은 직구를 공략해 우측 폴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홈런으로 연결했다.

불펜진의 호투로 5-3의 리드를 지키던 넥센은 8회 1사 2루에서 유원상의 폭투 때 대주자 유재신이 홈을 파고들어 쐐기를 박았다. 넥센은 8회부터 구원왕 손승락을 투입해 LG 타선을 틀어막았다.

한편 오른쪽 복숭아뼈 아래에 타구를 맞은 우규민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오프 2차전은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넥센은 밴헤켄을, LG는 신정락을 선발투수로 예고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27일

■목동

L G	0 0 2	1 0 0	0 0 0	3
넥센	0 1 0	0 0 4	0 1 X	6

△승= 조상우(1승) △세=한현희(1세이브) △패=정찬헌(1패) △홈런 = 스나이더 1호(4회1점·LG) 윤석민 1호(6회3점·넥센)

안치홍 사건과 병역문제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선동열 전 KIA 감독이 여론의 벽에 부딪혀 스스로 물러났다. 82년 프로 출범 이후 감독이 재계약 후 자진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임 3년간 4강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지 못했다. 불세출의 레전드 선동열 개인에게 시련이고 야구계의 손실이기도 하다.

선 전 감독의 불명예 퇴장은 안치홍 사건이 컸다. 지난 10월초 군입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임의탈퇴'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썼다는 것이다. 본의가 아닌 것으로 오해가 풀렸고 군입대가 결정됐는데 재계약 후 한 지역 언론의 보도로 파장이 커졌다. 선 전 감독은 가족의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낸 이들에게 문자테러를 당하자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안치홍 사건의 뿌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이다. 안치홍은 태극마크에 올인했다. 입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도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금메달을 따고 환호작약하는 선수들 보면서 안치홍의 상심은 커졌고 입대를 결심했다.

여기서 개인적인 권리와 야구단의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혔다. 야구단은 선수들의 입대 문제를 관리한다. 특히 주전들은 순차적으로 군대에 보낸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행이었다. 매년 상무와 경찰청 입대 인원이 한정된 점도 있다.

안치홍이 입대를 결정하자 구단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다. 구단의 밑그림은 2015시즌을 마치고 입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유격수 김선빈의 입대가 결정된 마당에 안치홍까지 빠지면 공수의 공백이 컸다. 몇 번 만나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사단이 났다.

안치홍도 할 말은 있다. 2009년 고졸로 입단 이후 주전으로 매년 풀타임을 뛰느라 심신이 지쳐 있었다. 몸이 성한 곳도 없었다. 이 참에 병역의무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팀 상황과 맞지 않은 것이 파열음이 났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그만 불똥이 무서운 불길이 됐다. 앞날이 창창한 안치홍에게도 상처이다. 빨리 잊기를 바랄 뿐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올림픽 스타 "제주서 만나요"

전국체전 개막…손연재·이시영 등은 불참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오는 28일 제주에서 막을 올리고 다음달 3일까지 1주일 동안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대학·일반·해외동포부로 나눠 총 3만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모두 47개이며 택견과 수상스키, 바둑은 시범 종목으로 치러진다.

특히 지난 4일 마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선전을 펼친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따내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최다 메달 신기록(20개)을 세운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인천시청)도 모습을 나타낸다.

역도의 '오뚝이' 사재혁도 소속팀인 제주도청 마크를 달고 참가한다. 아시안게임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진혁과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 정다소미는 제주 소속으로 출전한다.

'도마의 신' 양학선(한국체대)도 참가해 분위기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깜짝 2관왕에 오른 고교생 총잡이 김청용(흥덕고)도 경기에 나선다. 배드민턴 간판 '꽃미남' 이용대(삼성전기)도 전국체전 열기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리듬체조 손연재(20·연세대)는 불참한다. 갈라쇼를 하루 앞둔 17일 공개 리허설에서 손연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까지 올 시즌 내내 쉬지 않고 달려와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전국체전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국체전 출사표를 던졌던 '배우 복서' 이시영(32·인천)은 훈련중 입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관심거리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2013년 대회까지 종합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종합 우승을 노리는 경기도를 서울이 따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 성화 지역 채화식에서 선녀가 채화된 성화를 들고 있다. /뉴시스

한편 성화는 지난 25일 한라산 백록담에서 채화된 성화와 26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합쳐져 개회식날 제주종합경기장에 설치된 성화대에 오른다. /김학철기자

정몽규 회장, FIFA 집행위원 도전



정몽규(52·사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출마를 알리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에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회장은 공문에서 "협력을 통해 아시아 축구의 성장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 FIFA 집행위원직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아시아에 배정된 FIFA 집행위원 자리는 총 4석이다. AFC 회장이 FIFA 부회장으로서 1석을 자동 배정받으며 나머지 3석의 주인은 내년 4월 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FC 총회에서 선출된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대한축구협회 회장 취임 이후 2017 FIFA U-20 월드컵 유치, 월드컵 8회 연속 본선 진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27일

삼성화재	3	0	우리카드
KGC인삼공사	3	0	GS칼텍스

프로농구 전적 27일

오리온스	15	22	23	21	81
KCC	9	17	11	21	58



모든 디스플레이를 전자 칠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펜 '빅노트'를 개발한
SK텔레콤 BRAVO! Restart 2기
아이에스엘 코리아 권돌 (42세) **대표**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할 혁신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SK텔레콤이 함께 합니다

SK텔레콤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할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조적 아이디어에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더해
창업을 그저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업가들에게 힘이 되는 **[BRAVO! Restart]**로
대한민국 **창조경제**에 힘이 되겠습니다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통해 창업 시작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를 다시 쓰다 | SK telecom